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지원사업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 공민서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집

기획 및 편집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송수경
팀원 공보배
김옥진

(재)부산문화재단
2023-023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디자인 및 제작
아이디얼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5-7234
F. 051)744-7708
H. www.bscf.or.kr

목 차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예술단체 × 공연장 소개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 공간소극장	5
02	극단 더블스테이지 × 부산민주공원	17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 어댑터 플레이스	29
04	극단 자갈치 × 신명천지소극장	41
05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53
06	극단 해풍 × 북구문화예술회관	65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 용천소극장	77
08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87
09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영도문화예술회관	99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109

ISSN 2982-5105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 공간소극장

01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연극은 삶으로 녹아 예술로 승화한다.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은 삶과 예술이 괴리되지 않는 연극을 추구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연극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희생시키며,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 그것은 이상을 추구하는 비장미, 아름답게 융합하는 우아미, 그리고 궁극의 숭고미다.

대표작들은 표현주의극, 부조리극과 같은 작품으로 2014 <천국주점(Out of Heaven)> - 대만 차사극단(差事劇團) 협업, 2016 <초대_바다에게 말을 걸다> - 대만 극단 Black dog과 협업, 2017 <꿈'17 안티고네>, 2017 <Declassify Pandora> - 대만 차사극단(差事劇團) 협업, 2018 <하녀들>, 2021 <춤추는 난민들>, 2021 <해안도로>, 2022 <우리 집 트락에는> 등의 작품이 있다.

감성 드라마와 같은 작품으로 2012 <사랑 툽툽!>, 2014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2015 <도둑과 연인>, 2015 <아빠들의 소꿉놀이>, 2015 <크리스마스에 30만원을 만날 확률>, 2016 <봄이 오는 소리>, 2017 <길동포차>, 2017 <인정 못한 인정>, 2019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지켜줄 거야 친구야>, 2019 <마중> 등의 대표작이 있다.

감성 아동극으로 2013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2016 <심술 도깨비 친친>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 현대희곡의 초석을 다진 최인훈 작가의 2022 <봄이 오면 산에 들에>를 비롯한 연작 시리즈에 도전하고 있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전

공간소극장

우수한 작품, 극단, 연극인을 발굴하여 지역 연극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예술전용 민간소극장이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연극 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지향하며, 나아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개관일	2004년 7월 8일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42 지하 (지하철 2호선 대연역 2번 출구 나가기 전 역사 안)
주요시설	소극장(60석)
공연문의	051-611-8518
누리집 /SNS	cafe.naver.com/ggtheater
장애인석	3석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x 공간소극장

공간소극장

원맨쇼

공연개요	
공연명	원맨쇼
공연일시	2023년 9월 15일(금)~23일(토) 평일 19:30, 토 16:00 (일요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공간소극장
제작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출연진	황미애 조정우
스태프	작 박장렬 연출 전상배 무대 황지선 음악 전현미 노래작곡 박진규 조명디자인 전상배 영상 이연승 기획 황미란 스태프 김동규 황정인



공연 01

<원맨쇼>

줄거리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의 원맨쇼~!

아들은 노래를 배우고 연기도 배웠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극을 하는 순간 아들 또한 행복하다.

엄마는 치매에 걸리고 몸이 불편하다. 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여행하고 싶은 곳도 많은 엄마.

아들은 그런 엄마를 위해 연극을 하고, 엄마는 아들의 연극으로 위로받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하는 순간들이 행복하다.

하지만, 어느 날 행복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 하나가 밝혀지는데...

연출의 말

아들의 마음은 엄마를 향해 있다!
아들은 행복이라는 꿈을 향해 있다!
아들은 행복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향해 있다!
아들은 절망의 현실을 지워버리고 싶다!
어떤 이상을 향해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엄마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 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뭐든 다 주고 싶다!
엄마는 자신의 희생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자신의 희생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사랑을 향해 있는 모든 엄마들처럼!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x 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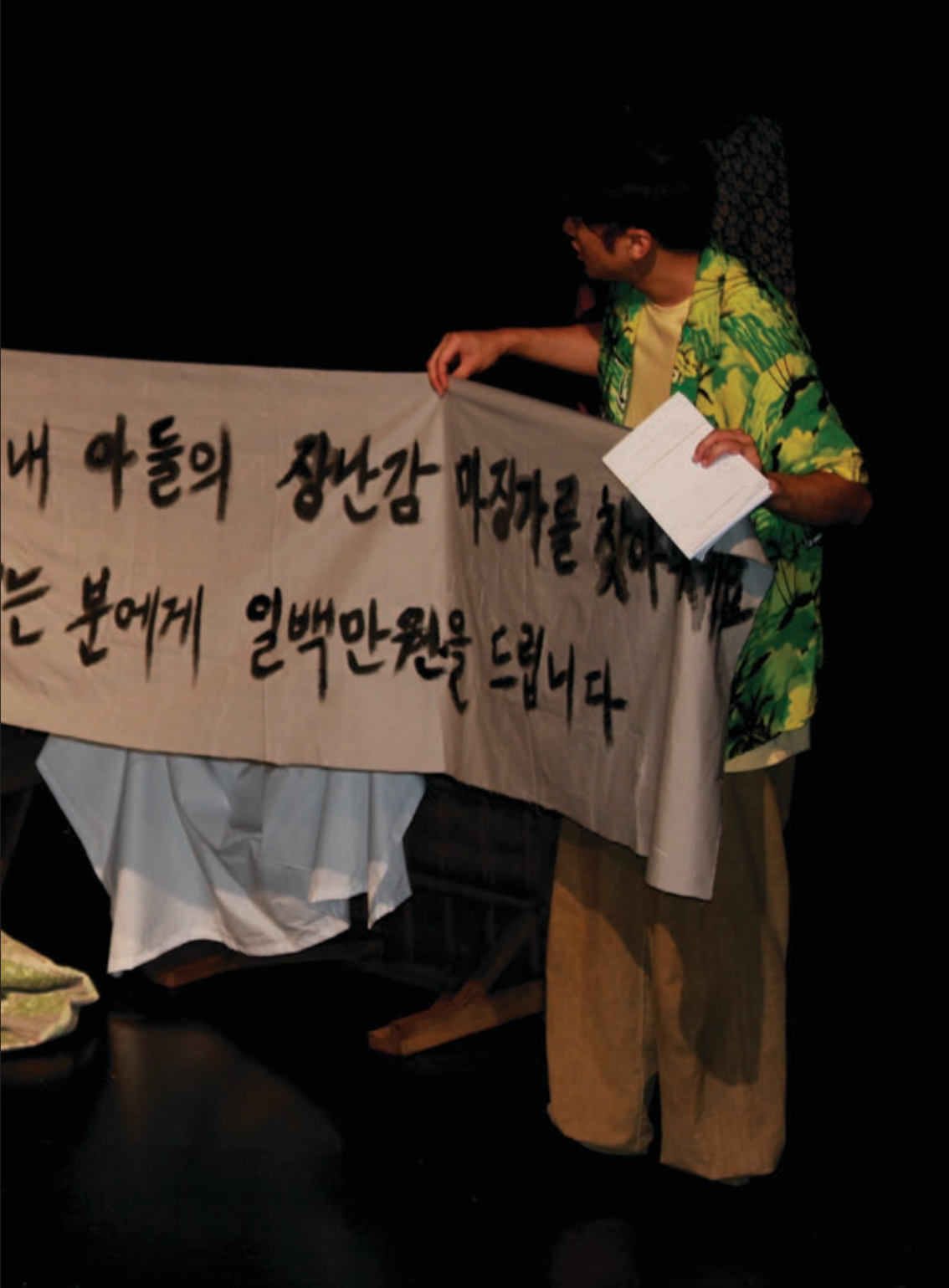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에니엔킹 x 공간소극장





극단 더블스테이지
× 부산민주공원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아니연경 × 공간소극장



02 극단 더블스테이지

극단 더블스테이지

극단 더블스테이지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대'라는 뜻으로 무대 위의 배우들은 서로 교감하며 관객들과는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은 취지로 2007년에 창단하였다.

순수 연극을 표방하되 어린이를 위한 아동극, 청소년을 위한 교육극, 어르신을 위한 마당극 등 예술적인 색깔이 짙은 작품부터 관객들이 부담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수준과 성향, 욕구를 파악해 독창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극 창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술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으로 관객들에게 질문과 생각을 던질 수 있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민주공원

역사를 배우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부산 시민의 민주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간이며 시민 중심적인 공연장으로써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관일	1999년 10월 16일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주요시설	중극장(419석), 소극장(120석)
공연문의	051-790-7400
누리집 /SNS	www.demopark.or.kr
장애인석	중극장(5석), 소극장 없음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공연개요	
공연명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공연일시	2023년 9월 22일(금)~24일(일) 금 19:30, 토·일 15:00
공연장소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
제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출연진	김유민 손창민 손상훈
스태프	예술감독 이종근 작가 김지숙 연출 김동민 기획 이효심 작곡 이영준 홍보/사진 유시화 무대감독 정순원 무대 HM컴퍼니 김수철 조명디자인 탁현진 조명OP 신 민 조연출/음향OP 김민지 영상감독 김민훈 사건영상/영상OP 김상재 의상/소품 김한솔 분장 윤채원 공연진행 강경숙 오아름



공연 02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줄거리

아들 영도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국밥집엔 먼지만 쌓여있고 아버지는
사라졌다. 지친 영도는 집으로 돌아가 쉬려
하지만 종업원 기택은 영도를 감금한다.
기택은 영도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영도 자신이라고
몰아붙인다. 영도는 추호도 아버지를 죽인
기억이 없다 항변한다. 하지만 기택의
반복된 설득으로 영도는 어느새 아버지를
죽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인물들의 죽음을
파헤치려는 생각은 없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조각난 기억들은 왜 아귀가 맞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비록 하나이지만, 뒤틀린 인간의
이기심은 천 가지의 진실로 왜곡될 수 있다.
감각이 왜곡되고 사유에 점령당하면 유일했던
진실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

끝내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은 조작된
기억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영도와 기택.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본다.

연출의 말

매미가 운다
김동민

여름, 매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깜깜한 땅속에 매미,
땅속에서 긴 시간 꾀꾀 참아왔습니다.
참다 참다 더는 참지 못해 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격렬히 울었습니다.

(사이)

갑갑한 그곳에 나는,
그곳에서 긴 시간 꾀꾀 참아왔습니다.
참다 참다 더는 참지 못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격렬히 울었습니다.

그곳,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02

극단 더블스테이지 x 부산민주공원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전

02

극단 더블스테이지 x 부산민주공원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전

02

극단 더블스테이지 x 부산민주공원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x 어댑터 플레이스

03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2004년 창단한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배·관·공)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배우 중심의 무대 예술을 추구하는 연극 창작집단이다.

비움을 통해 풍요로운 무대 미학을 완성한 <소라가 말하는 것이 하두 신기하여>를 시작으로 2005년 창작극 <D.O.X 거짓된 호르몬>, 2006년 <멸망과 새로운 생명>, 2007년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2008년 <더 브릿지>를 통해 부산창작극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2010년 이후 <칼리굴라>, <마이 디어 헬렌>, <안네 프랑크>, <제10층>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6년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으로 미국 뉴욕에서 <마이 디어 헬렌>이란 작품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타블라 라사와의 협업으로 공동제작 및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후 <THEATRE FOR PEACE PROJECT>를 결성하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되는 <평화를 위한 여성연극축제>에 마이 디어 헬렌, 안네 프랑크가 공식 초청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초연한 무연극 <안네 프랑크>는 2017년 부산국제연극제 공식 초청을 시작으로 부산, 서울 공연과 더불어 2018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되는 <평화를

위한 여성연극축제>에 공식 초청되어 공연, 전회 매진의 기록으로 콜롬비아 관객들에게 선보였고, 2019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개최되는 <보더라이트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어 안네 프랑크의 한국 제작팀(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이 클리브랜드 퍼블릭 씨어터와 레지던시를 진행, 워크숍과 정규 공연, 보더라이트 페스티벌 공식 초청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공연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 2020년 <안네 프랑크>는 <LOWER EAST SIDE FESTIVAL OF THE ARTS 2020, 미국 뉴욕>와 <FESTIVAL DE TEATRO ALTERNATIVO 2020, 콜롬비아 보고타> 온라인축제에 초청되어 선보였다.

2020년 지금 세계의 여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과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힘과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소통의 장'이었던 축제의 형식을 빌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 연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강한 공연예술축제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를 출발하였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의 이슈를 연극작업(공공연극)으로 풀어내는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집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x 어댑터 플레이스

어댑터 플레이스

온앤오프 디지털극장을 표방하는 <어댑터 플레이스>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고 작동 시킨다는 '공연실험'을 통해 미래 공연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는 극장이다.

개관일	2020년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193, 7층
주요시설	소극장(80석)
공연문의	051-911-1447
누리집 /SNS	www.adapter.theater www.instagram.com/ yesweare_adapter
장애인석	없음



죽음과 소녀 (DEATH AND THE MAIDEN)

공연개요	
공연명	죽음과 소녀 (DEATH AND THE MAIDEN)
공연일시	2023년 10월 13일(금)~22일(일) 평일 및 주말 19:30 (수요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어댑터 플레이스
제작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출연진	박찬영 홍승이 윤준기
스태프	작 아리엘 도르프만 연출 주혜자 제작프로듀서 이지숙 조연출 최정배 무대디자인 황경호(라쿤 스테이지) 조명디자인 이하솔 조명크루 이영석 송지현 음향감독 백인아 음악지원 한민희 무대감독 김선현 심종석 조명오퍼레이터 박준혁 음향오퍼레이터 박주원 디자인 정기연(제이컴) 기획 및 운영 윤민호 엄지영 김진주



공연 03

<죽음과 소녀(Death and the Maiden)>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x 어댑터 플레이스

줄거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죽음과 소녀>는 칠레 출신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리엘 도르프만의 1990년 작품으로, 1990년 칠레 민주 정부 출범 이전 17년간 지속된 군부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선 후, 독재정권의 만행을 밝히고 기록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러지지만 화합과 평화라는 이름 아래 군부 쿠데타 희생자들의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던 칠레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칠레의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모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제압했던 군부는 의대생 빠울리나 쌀라스를 납치하고 그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슈베르트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 성폭행과 고문을 자행한다.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빠울리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빠울리나의 변호사 남편 헤라르도는 젊은 시절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고,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과거 군부독재 정권하에 저질러진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허울뿐인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적인 빠울리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헤라르도. 이들 부부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던 어느 날,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길을 나섰던 헤라르도는 길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 나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마침 길을 지나던 닥터 미란다가 헤라르도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빠울리나는 닥터 미란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알아챈다.

그날 밤, 닥터 미란다를 포로로 잡고 권총으로 무장한 빠울리나가 그를 심판하려 한다. 그러나 변호사 남편 헤라르도는 복수를 위해 군부정권이 저지른 폭력적인 방식으로 응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 결백을 주장하는 로베르도 미란다와 그를 변호하게 된 헤라르도, 진실을 원하는 빠울리나. 뒤엉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은 세 사람의 처절하고 절박한 외침이 교차되며 관객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연출의 말

인간의 용서와 역사의 고통을 탐구하는 희곡

<죽음과 소녀>는 오랜 시간 동안 칠레를 뒤흔들었던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인권과 폭력, 복수와 용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더불어 증오와 혐오가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정치, 환경, 역사가 맞물린 과거를 뚫고, 대상화된 인간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직면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칠레의 역사와 인권 운동을 배경으로 군부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는 희곡의 무대배경에 표현된 것처럼 칠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재를 경험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특히 빠울리나 쌀라스, 헤라르도 에스꼬바르, 로베르도 미란다 등 세 인물의 입장과 상황, 정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수인이 되지 않고 과거를 살아있게 할 것인지, 미래에 과거가 되풀이될 위험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과거를 잊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죽음과 소녀>를 통해 과거와 현재, 용서와 구원에 대한 고요한 고민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전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 아델티 플레이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x 아델터 플레이스

극단 자갈치 × 신명천지소극장

04



04 극단 자갈치

극단 자갈치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키워나가기 위해 1986년 창단되었다.

전통 연행에 바탕을 둔 창작방식으로 탈춤, 소리, 풍물을 한 차원 높여 마당극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시대정신을 찾아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986년 <태백산맥>을 시작으로 1987년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의 현장을 파헤친 작품 <복지에서 성지로>부터 부산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영도다리>, <굿거리 트로트>, <헌책방>을 비롯하여 2013년 <오마이갓뎡>, 2016년 <Remember...>, 2017년 <광대열전>, 2019년 통일줄긋 <피리 부는 사나이>, 2020년 <우리이야기>, 2021년 <우리이야기> 앙코르 공연, 2022년 한국판 파우스트를 찾아서 <파우스트와 카바레뜨>에 이르기까지 총 37회의 정기 공연과 20여 차례의 기획공연 등 다양한 창작공연을 제작, 기획하고 있다.

또한 부산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 연극학교, 연극아카데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일반시민동아리 모임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하며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9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고, 2014년~2016년 민주공원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되어 공연하였으며 2023년 공연장연계 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금정구 부곡동 소재의 신명천지소극장에서 활발하게 공연 중이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전

신명천지소극장

1990년 민족굿터 신명천지라는 이름의 소극장으로 개관하였다.

극단 자갈치 전용 소극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좋은 공연을 개발하고 참신한 기획을 통해 한국적 예술미학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개관일	1990년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77 지하
주요시설	소극장(80석)
공연문의	051-515-7314
누리집 /SNS	www.jagalchi.or.kr
장애인석	없음



04

극단 자갈치 × 신명천지소극장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공연개요	
공연명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공연일시	2023년 6월 9일(금)~10일(토) 금 20:00, 토 17:00
공연장소	신명천지소극장
제작	극단 자갈치
출연진	정승천 홍순연 이미화 진성호 박은주 김여진 최세희 신상현 김유하
스태프	작 괴테 손재서 연출 강미정 손재서 안무 정기정 조명감독 신상현 음향 김유하 조명 김홍익 진행 김지영 무대디자인 황지선 의상디자인 박정희 분장 김해인 사진 박정훈 홍보물디자인 김정희 자문 장희창



공연 04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작품설명

세계적 고전인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국적으로 이해하고자 기획한 <파우스트와 카바레뜨>에 올려진 4개의 짧은 형식의 창작공연 중 두 개의 작품을 마당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카바레뜨' 형식은 갖추지 않고 두 개의 작품을 연결하는 도창광대의 해설로 작품을 이어간다.

강미정 연출의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에서 주님과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대화와 파우스트의 독백을 통해 파우스트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손재서 작/연출의 <생각의 탄생>을 통해 파우스트를 다양한 방법과 재미난 형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고전을 뒤집어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공연이다.

연출의 말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
강미정 연출

“태초에 행위가 있었노라!”라고 말씀을 행위로 바꾼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의 도움(?)으로 연구실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만남은 극의 서두인 천상의 서막에서 이미 예정되었다.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유감스럽게 신학마저도 공부한, 형이상학의 대표 격인 파우스트 박사를 모순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오게 하여 인간의 욕망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 작품의 핵심이 있다고 보았다.

<생각의 탄생>
손재서 작/연출

원작 속에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는 일종의 인공지능(AI)으로 보이는 호문쿨루스를 통해 그리스 신화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원작에서는 짧게 등장하지만, 파우스트의 조수 바그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등감과 속물근성으로 똘똘 뭉친 입체적이고 사랑스러운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이야기라면 한 편의 마당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당극은 SF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감싸고 풀어내어 온 마당극이라면,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도 춤과 장단과 소리로 신명을 불러내는 마당극이라면, 타임머신이든 인공지능이든 똑딱 마당판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해 보고 싶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꼭두각시 인형놀음으로 판을 열고자 한다.

04 극단 자갈치 x 신명천지소극장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전



공연 04

<파우스트와 카바레트>



04

극단 자갈치 x 신명천지소극장



04

극단 자갈치 x 신명천지소극장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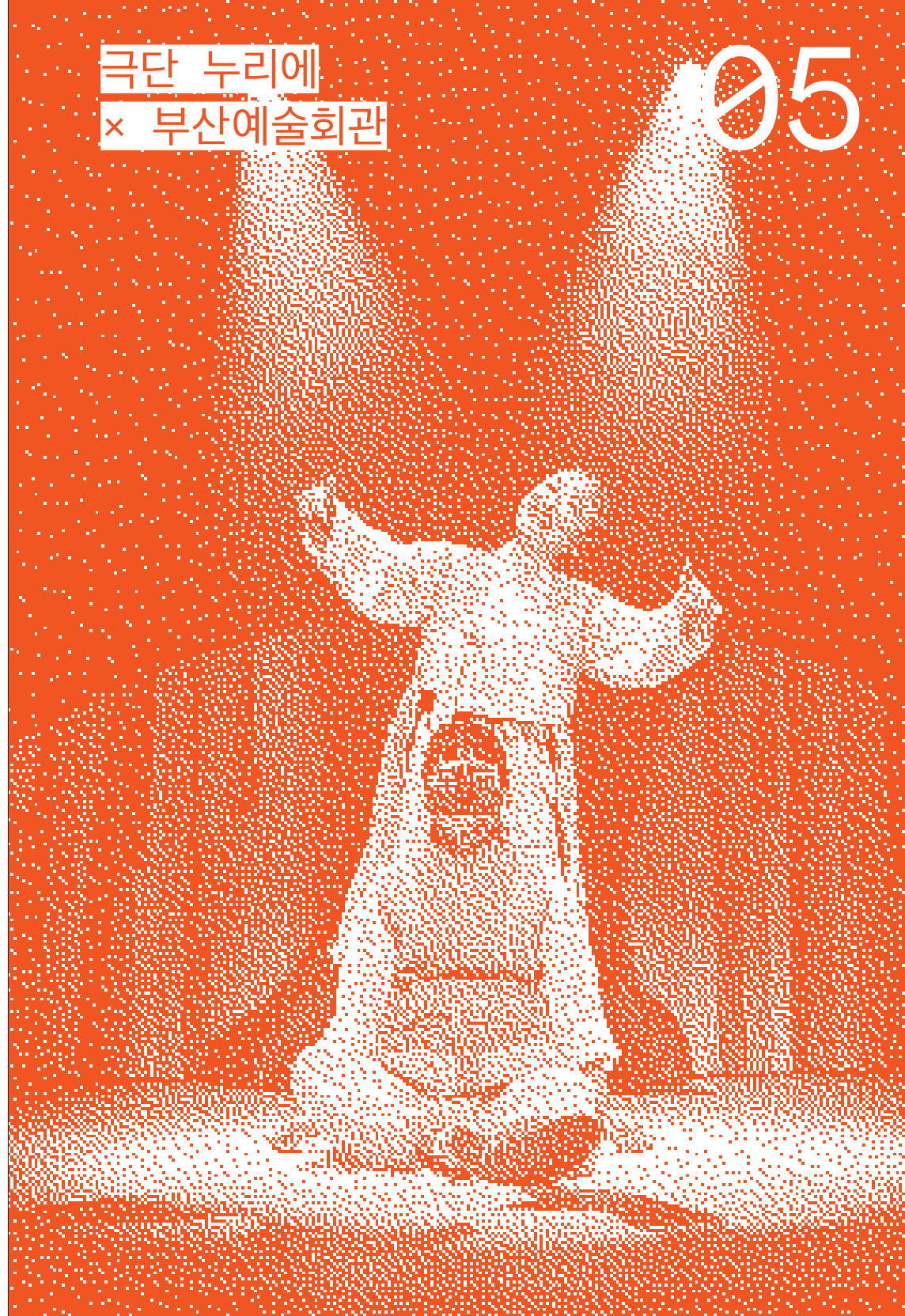
공연예술비영진

04

극단 자갈치 × 신명천지소극장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05



05 극단 누리에

극단 누리에

부산을 모태로 한 극단 누리에는 1997년 전문화된 연극을 창작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창단한 연극단체로 연간 3회 정도의 정기 공연 실적이 있으며, 번역극보다는 창작극 공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산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작품상, 연출상, 연기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작품상 및 개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저력 있는 극단이다.

극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관극 체험과 즐거움을 주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지금 이 시대의 삶을 표현하고, 극 안에서 사회를 이야기하며 관객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2017 • 창단 (창단공연: 하사 이재구(원작 <보이체크>)
- 2008 • 제26회 부산연극제 신인연기상, 무대기술상 <사이에서>
- 2009 • 제27회 부산연극제 무대기술상 <몽실>
- 2010 • 제28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꿈꾸는 화석>
- 제28회 전국연극제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꿈꾸는 화석>
- 2011 • 제29회 부산연극제 남·여 우수연기상 <여자이발사>
- 2012 • 제30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신인연기상 <개 짖는 날>
- 2013 •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G0아비뇽 우수상 <쥐>
- 2014 • 제32회 부산연극제 우수연기상 <칼치>
- 2015 • 제33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희곡상,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사초>
- 제33회 전국연극제 은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상 <사초>
- 2016 • 제34회 부산연극제 경연부문 최우수연기상 <구멍 속 구멍>
-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한형석 연출상 <수업>
- 2018 • 제3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무대기술상, 신인연기상 <그림자의 시간>
-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자의 시간>
- 2019 • 제3회 작강연극제 은상, 전성환연기상 <파 한 단, 두부 한 모>
- 202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그림자의 시간>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가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은 밀집된 대학가와 남구 UN 평화문화 특구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예술 소통의 장으로 2011년 개관하였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 등을 개최해 지역예술가와 시민이 예술적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이자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개관일	2011년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주요시설	공연장(240석), 전시장, 연습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주차장(68면)
공연문의	051-631-1377
누리집 / SNS	www.bsart.or.kr
장애인식	4석



05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줄 없는 나무인형

공연개요	
공연명	줄 없는 나무인형
공연일시	2023년 7월 21일(금)~23일(일) 금 19:30, 토 11:00/14:00, 일 14:00
공연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제작	각색 김경미 강성우 연출 강성우 제작/기획 강봉금 작곡 전현미 안무 윤시내
출연진	솔 역 강진욱 제씨 역 이재찬 삼신할망 역 홍선주 마마신 역 우지현 이심이 역 이희선 윗도리 역 김유빈 바지 역 손창민 약사 이우창 이재화
스태프	무대감독 김아라 무대디자인 황치선 무대제작 황경호 조명디자인 조경수 조명 김수한 분장 박은주 의상 김현진 소품 안나영 음향OP 정수연 탁현국 진행 황유나



공연 05 <줄 없는 나무인형>

줄거리

생명을 점지하고 탄생을 주관하며 아이들의 행복이 자신의 기쁨이라 여기는 수호신 삼신할망.

소중한 생명을 병들게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세상의 행복을 잠재우는 것이 자신의 기쁨인 마마신.

삼신할망은 자신이 생명을 점지하는 곳마다 따라와 전염병을 퍼트리는 마마신을 대적할 비책을 찾는 중이다.

이 동네 목수 제씨에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장승을 만들 것을 권유하지만 제씨는 나무인형을 만들어낸다. 삼신할망은 마마신의 액막이를 나무인형으로 하기로 마음먹는다. 삼신할망을 도와 이무기가 되기 위해 덕을 쌓고 있는 이심은 산고 없이 태어나는 나무인형의 존재에 대해 염려하지만, 삼신은 나무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름을 얻게 되는 나무인형 '솔'.

나무인형이 태어나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씨는 바람 잘 날 없는 날들을 보낸다. 솔이 부리고 다니는 말썽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항의를 하기 위해 몰려오기 때문이다. 지친 제씨는 솔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을 삼신할망에게 쏟아낸다. 그 얘기를 듣게 된 솔은 집을 무작정 뛰쳐나와 제씨를 떠난다.

갈 곳 없이 돌아다니던 솔은 엿을 먹고 있는 말썽꾸러기 개똥과 마주치고 한량골에 대해 듣게 되고 흥미를 느낀다. 개똥은 솔에게 그곳에 가고 싶으면 스무 냥의 돈을 구해오라고 한다. 그때 솔이의 눈 앞에 펼쳐지는 사당패의 놀이판. 호기심 많은 솔은 그곳에 휩쓸려 놀이판을 망쳐놓는다. 화가 난 놀이판의 주인, 사당패의 단장은 솔을 붙잡아 추궁하다 사당패의 일원으로 끌어들인다.

한편, 솔을 따라다니던 이심은 사당패 단장의 정체를 알고 놀란다. 이심은 삼신할망에게 마을에 마마신의 마수가 뻗치고 있고 그 패거리에 솔이 잡혀있다고 알리는데...

기획의도

피노키오의 모험을 모티브로 모험보다는 탄생과 성장을 포인트로, 요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가장 보편화되고 쉬운 작품으로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성인이라고 모두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자신이 만든 줄에 갇혀 사는 현대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하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진심 어린 교훈을 전하고, 어른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명작동화로 알려져 있다. 거짓말을 하면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은 길어진 코처럼 언젠가는 들리게 되며, 더불어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백색의 거짓과 흑색의 거짓이 넘쳐난다. 하지만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거짓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

연출자는 이 동화를 지금을 사는 이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다.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닌 줄 없는 나무인형으로 천방지축 험난한 모험이었지만 그러했기에 스스로 터득하며 성장했을 것이리라. 우리의 팔과 다리에 보이지 않는 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른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라본다.

05

극단 누리에 x 부산예술회관





2023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집



공연 05

<줄엿는 나무인형>



05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05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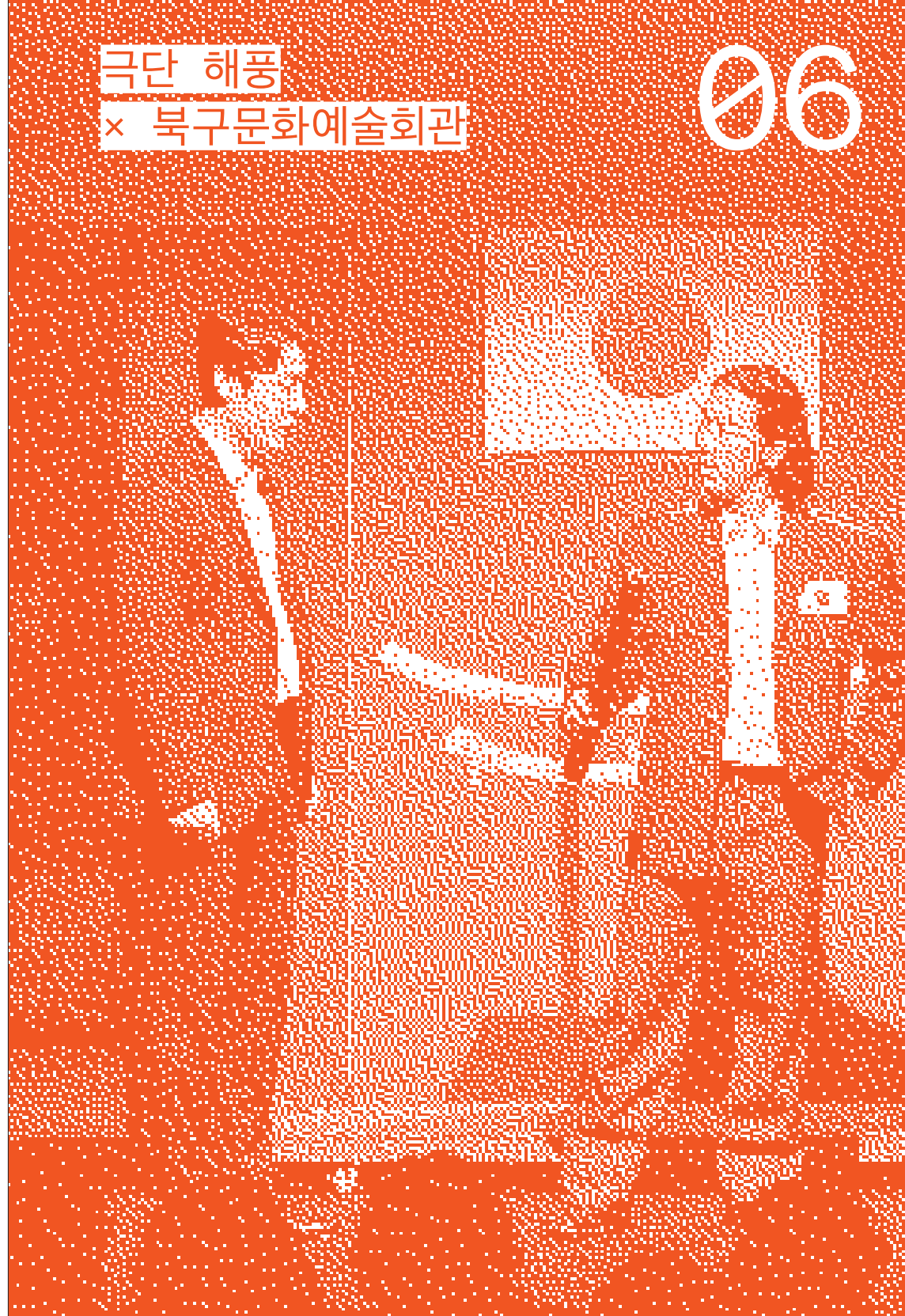
05

극단 누리에 x 부산예술회관

극단 해풍

x 북구문화예술회관

06



06 극단 해풍

극단 해풍

극단 해풍은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이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에 창단하였다.

창작극 <진심>, <포빅타운>, <老미오와 줄리엣>, 소설 각색 창작극 <타미카레드>, <노을의 무도회>, <그녀의 사랑법>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 <북극여우 까망이>, 뮤지컬 <어른왕자>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부산연극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의 상주예술단체로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북구의 구포만세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극 <구포1919>는 33명이 무대에 오르며 감동의 순간을 만들기도 했다.

극단 해풍은 부산연극을 발전시키고 북구 연극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18년 북구 시민극단 '감동진', 2021년 북구 어린이극단 '소풍', 북구 실버극단 '청춘은 봄', 2022년 북구 청소년극단 '별숲'의 창단을 돕고 연극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2022년 북구연극공동체 '온'을 설립하였다. 극단 해풍과 북구연극공동체는 지난 4년간 함께 '감동진연극제'를 이끌어왔다.

2023 공연장 연계 예술 단체 육성 지원 사업

공연예술비평전

06

극단 해풍 ×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2005년 개관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북구 주민의 문화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과 수준 있는 무대를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 관람 후 나무숲 공원에서 휴식과 걷기 운동뿐 아니라 주변의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개관일	2005년 7월 28일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
주요시설	공연장(341석)
공연문의	051-309-4082
누리집 /SNS	www.bsbukgu.go.kr
장애인석	없음



북구문화예술회관

구포1919

공연개요	
공연명	구포1919
공연일시	2023년 9월 14일(목)~17일(일) 평일 19:30, 토 17:00, 일 15:00
공연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제작	작/연출 이상우 안무 박재현 작곡 김영구 기획 김세진 고명현
출연진	이권아 김선관 이진희 조기정 고명현 고정보 김선영 신현우 최 민 권혁철 정태웅 류재철 설영성 장재희 한상훈 방형웅 박승빈 이옥임 조섭제 최복덕 이명숙 서애자 김선자 최기봉 민정식 김선영 김성화 이현정 박정은 박양숙 최정임 김태숙 배소연 박서준 방가희 장호빈 조운성 주예은 김시윤 정가인 이희영 전우원 전지원 최윤아 조아을
스태프	의상 이영덕 무대 전영주 음향 박성준 조명 이정환 분장 원미란 진행 배소연 박새별 외



공연 06

<구포1919>

줄거리

구포는 경부선 기차와 안동에서 구포까지, 그리고 일본까지 낙동강 배가 오가는 일제강점기 부산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다. 당연히 영남 3대 시장인 구포시장이 썼고 일본은 구포를 지배하기 위해 폭력적인 일본인 주재 소장을 파견하였다.

친일 경찰 일배는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 내려오는 경성학생단 소속 김명근을 구포역에서 검거하여 부산공립상업학교의 만세운동을 저지하며 승진한다.

구포장날 구포시장 상인들과 구포면민들은 구포시장으로 온 꼭두패의 재담꾼 훈이로부터 독립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하는데, 잡혀갔던 구포의 청년 옥경을 끌고 온 일배와 주재소장의 출연에 긴장한다. 구포사람들은 밤이 되자 한 집으로 모여 만세운동을 결의한다.

잡혀갔던 옥경은 주재소의 비상사태를 전하며 만세운동의 실패와 구포사람들의 수난을 걱정한다. 재담꾼 훈이는 경성학생단 소속의 구포출신 양봉근이었고, 그를 기다리던 순덕은 양봉근이 만주 독립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에 반대한다.

마을 사람들은 옥경이 일배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을 우려하여 만세운동을 이틀 뒤 구포장날인 29일로 당기기로 한다. 만세운동 당일 태극기를 돌리던 순덕이 일배에게 발각되고 순덕을 구하기 위해 봉근이 일배의 총에 맞는다. 절체절명의 순간 일배의 옆에 있던 옥경이 일배의 총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봉근이를 도피시키고 총에 맞는다. 일배 역시 총을 맞고는 시장사람들에게 쫓겨 도망간다. 시장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한다. 봉근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옥경은 다시 봉근이를 구하기 위해 주재소로 들어간다. 봉근이는 무당인 순덕의 엄마 금화가 있는 당집으로 피신한다. 주재소장이 봉근을 잡으러 오지만 금화가 모시고 있는 장군신이

주재소장을 쫓아낸다. 봉근이는 다음날 만주로 떠난다.

기획의도

2019년 구포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북구 브랜드 공연 <구포1919>가 극단 해풍이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5년째 되는 해를 맞이하여 재공연한다.

극단 해풍, 극단일터, 전통종합연희단체의 전문예술인과 함께 북구민들로 구성된 북구연극공동체 '온'의 북구어린이극단 '소풍', 북구 청소년극단 '별송', 북구시민극단 '감동진', 북구실버극단 '청춘은 봄'의 43명의 출연진과 함께 구포 만세운동의 뜨거운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자.

- 3.1.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의 3대 만세운동지인 구포장터 만세운동을 주제로 북구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인다.
- 구포시장과 구포국수 그리고 북구의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 북구의 브랜드 공연으로 북구민들을 위한 공연 레퍼토리이다.

06

극단 해풍 x 북구문화예술회관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전

06

극단 예몽 x 북구문화예술회관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x 용천소극장

07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부산연극제작소 동넨은 1995년 창단하여 창작의 실험성과 전통 연희양식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레퍼토리 공연을 만들어 왔으며 시대극, 번역극, 현대극, 교육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적 체험과 경험의 확장을 통하여 활발한 창작활동과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작

<바리데기>, <할매 어데가노>, <운악>, <썬샤인의 전사들>, <가을 반딧불이>, <1945> 외

수상경력

- 2023
 - 부산연극제 <1945> 대상
 - 대한민국연극제 in 제주 <1945> 금상/무대예술상/우수연기상
 - 춘천연극제 <맹진사댁 경사> 우수작품상/연기상
- 2022
 - 작지만 강한연극제 <우리들의 친구, 인간> 대상/한형석연출상/무대예술상
 - 부산연극제 <가을 반딧불이> 우수작품상/연출상/신인연기상
- 2019
 - 부산연극제 <썬샤인의 전사들> 대상/연출상/신인연기상/무대예술상
 - 대한민국연극제 <썬샤인의 전사들> 은상
- 2013
 - 부산연극제 <운악> 대상/연출상/최우수연기상/우수연기상
 - 전국연극제 <운악> 대통령상/연출상/우수연기상/무대상 외 다수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가

용천소극장

용천소극장(용천지탈소극장)은 세상에 대한 일체의 눈치도 간섭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세상의 지축을 흔들며 하늘로 솟구치려는 용의 몸짓처럼 야단법석인 그런 연극을 하는 소극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극장으로, 총 80석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복합시설이 있는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다.

개관일	2008년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3번길 36-1, 2층
주요시설	소극장(80석), 갤러리 골목, 카페 다반, 라이브펍 노가다, 서점, 공방 등
공연문의	051-635-4316
누리집	없음
/SNS	
장애인석	없음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 용천소극장

우리들의 친구, 인간

공연개요	
공연명	우리들의 친구, 인간
공연일시	2023년 10월 13일(금)~16일(월) 평일 19:30, 주말 17:00
공연장소	용천소극장
제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출연진	박성호 이지은 남태인
스태프	작 베르나르 베르베르 번역 이세욱 연출 최용혁 기획 및 제작 박지현 기술감독 최승환 무대감독 신동현 음악 남태인 의상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분장 허민경 소품 최은선 홍보 장성현 진행 김선정 박신영



공연 07

<우리들의 친구, 인간>

줄거리

그가 눈을 뜬다.

태어나서 완전 처음 보는 곳이다.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가 어디인지, 당신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쳐보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애꿎은 야생 떠돌이 개들의 울음소리
뿐이다.
불길한 어둠 속에서 지쳐 포기하려는 순간,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더듬거려 다가가서 만져보니, 그 감촉은
'인간'이다.

그녀가 눈을 뜬다.

깨자마자 보이는 것은 웬 험벗은 남자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저 남자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해서 변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이
나쁜 인간 같지는 않다.
한참을 살펴보고 소리쳐봐도 도무지
모르겠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
들리는 것이라곤 번식기 고양이들의 구애의
울음소리뿐.
그때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빨간 불빛이
보인다.
도대체 누굴까, 우리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인간이.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x 용천소극장

연출의도

생각해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 함께 해왔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인간 아닌 다른 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내가 무섭진 않을까? 내 손길이 너무 거칠지
않았을까?
작년, 이 작품을 만나게 된 이후에서나
부쩍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인간은 식물보다 뿌리가 깊지 않고, 동물보다
자연친화적이지 않으며,
생존 욕구보다 생존력 자체가 강하지 않은데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참으로 많이 나약한데도
그런 존재가 어쩌나 이렇게도 끝없이
이기적이고 오만한 것일까.

말로만 인간 외 생명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했지만
실은 길을 가다 무심코 밟은 개미들,
잡초들의 권리는 커녕
생명 반응조차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어떤 드라마 작가의 말마따나 암세포도
생명이라 외치는 세상인데 말이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 역시도 어떤
<관객>이 존재하는 우리 속 허상이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채집되고 사육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 리들 의친 구, 인간이라고 말이다.





공연 07 <우리들의 친구, 인간>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 용천소극장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 용천소극장

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 용천소극장



08 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단법인 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창단하였다. 2015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민간오케스트라로서 창단 이후 만 13년 이상 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 4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초청공연, 해외 순회공연, 살롱 음악회 등 연간 30여 회의 폭넓은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주자와 협연을 통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택 상임지휘자의 슬로건, '느리게, 그러나 곧게... 최고 수준의 음악을 창조하는 높은 이상을 꿈꾼다.'를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문화예술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

금정문화회관

2000년 문을 연 금정문화회관은 부산의 대표 아트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부산의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로 자리매김하였다. 시민문화 복지 증대를 위해 미취학 아동부터 실버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활발히 전개하여 예술을 통한 활력과 매력을 선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자원 생태계를 확장하여 예술 산실의 명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개관일	2000년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7 (구서동)
주요시설	금빛누리홀(880석), 은빛샘홀(374석)
공연문의	051-519-5651
누리집 / SNS	art.geumjeong.go.kr
장애인석	8석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필과 3테너

공연개요	
공연명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필과 3테너
공연일시	2023년 5월 18일(목) 19:30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출연진	지휘자 홍성택 첼리스트 송영훈 심준호 이경준 김대연 테너 김지호 이신범 성민기
단원	제1바이올린 임병원(고문/악장) 차지희 원아름 김푸름 하은비 손연수 주해리 오유리 제2바이올린 김은정(수석) 우청일 강예지 김민규 김정려 심채영 전수민 비올라 박소영(초빙수석) 서주영 윤솔샘 김지수 김유림 박지인 김민경 첼로 김판수(수석) 김경연 김연경 이현아 오한별 이주영 윤주영 윤지영 더블베이스 구분룡(수석) 김은수 김세은 플룻 유혜성(수석) 안병건 오보에 김준태(수석) 정새롬 클라리넷 김상훈(수석) 강인화 바순 최영준(수석) 장원영 호른 최창현(초빙수석) 이시원 유우석 김양기 트럼펫 최수용(수석) 김형진 트롬본 손무정(초빙수석) 하연주 방제표 튜바 강지원 팀파니 김기무(초빙수석) 타악기 조우리 송민서 피아노 서해정
사무국	사무국장 박해정 공연기획 팀장 류진수 공연사업 팀원 하연지



공연 08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필과 3테너>

기획의도

2022년 부산국제클래식음악회에서 송영훈과 친구들(4첼로)이 스페셜 콘서트로 진행한 바 있다. 이는 VIP 초청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했던 무대였기에 모두에게 열린 무대가 아니었다. 네오필은 좋은 공연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음악회를 진행코자 한다.

프로그램

1부 <4첼로>

- Bolero(볼레로) M. Ravel
- Libertango(리베르탱고) A. Piazzolla
- Oblivion(망각) A. Piazzolla
- Adios Nonino(안녕, 노니노) A. Piazzolla
- Por Una Cabezza(영화 <여인의 향기> OST) C. Gardel

2부 <네오필 & 3테너>

- Opera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G. Verdi
- Funiculi, funicula(푸니쿨리 푸니쿨라) L. Denza
- "La donna è mobile" from Opera «Rigoletto»(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G. Verdi
- "Nessun dorma" from Opera «Turandot»(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G. Puccini
- O sole mio(오 나의 태양) D. Capua
- Opera «La Traviata» Prelude (오페라 <춘희> 전주곡) G. Verdi
- 번지없는 주막 이재호 작곡
- 향수 김희갑 작곡
-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김목경 작곡
- 아빠의 청춘 손목민 작곡

08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x 금정문화회관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8

부산네오펠하모닉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공연 08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연훈과 4첼로 & 네오펠과 3테너>

08

부산네오펠하모닉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8

부산대오케스트라모듬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영도문화예술회관

09



09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 <유코>)는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를 모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지금은 부산의 우수한 주자들이 합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를 기점으로 2007년 9월 부산과 LA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주회, 2008년 1월의 제주 초청연주회, 김해 초청연주회, 2009년 코리아타운 유스 커뮤니티센터 초청연주회(LA 월드디즈니 콘서트홀), 2012년 2월 중국 강소성 연주회와 7월 한·뉴질랜드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오클랜드, 웰링턴), 오스트리아 초청연주 및 정기연주회(사랑나눔음악회) 등 현재까지 국내외 포함 총 56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순수한 음악활동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아름다운 음악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북돋워 주고자 연주회 티켓 판매의 전액을 기부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꺼져 가는 어린 생명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고 우리 사회의 자선 문화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고자 우수 지휘자와 협연자 초청 및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200명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하여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으며 현재 예술단체의 운영은 자발적으로 각출된 단원들의 월회비와 독지가들의 기부 및 협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난치성 질환 어린이를 돕기 위한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기 위해 U.K.O <유코>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이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가

09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x 영도문화예술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2009년 개관한 영도문화예술회관은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428석의 대공연장과 157석 소공연장, 전시실, 4개의 연습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365일 문화의 인프라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발전과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품격 높은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관일	2009년 10월 19일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주요시설	봉래홀(대공연장, 428석) 절영홀(소공연장, 157석)
공연문의	051-419-5561
누리집 / SNS	www.yeongdo.go.kr/ culture.web www.instagram.com/ yd_artcenter
장애인석	6석



영도문화예술회관

비틀어진 세계 속 영도

공연개요	
공연명	비틀어진 세계 속 영도
공연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9:30
공연장소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제작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출연진	지휘자 오창록 음악감독 최영화 협연자 시명운 사회자 강이안 편곡 김혜림 악장 조은비 타악기 수석 전영수 외 단원 17명
단원	변은석 김상희 진혜빈 원유진 심수정 김영아 채지원 한운지 박주미 이윤하 김초롱 전해주 가용권 이나현 이수민 이태휘 유현승 악보계 황라현



공연 09

<비틀어진 세계 속 영도>

기획의도

201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특별총회 결과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티핑포인트, 즉 급변 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2021년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안에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현재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글로벌 문제, 기후위기에 음악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음악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프로그램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로저스
- 비틀어진 세계 중 가을 <편곡본>
비발디 - 레미스피 편곡 / Vn. Solo 시명운
- 토크! '지구를 위한 영도의 손길'
환경활동가 이승미
-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마스카니
- <세계> 중 가을 비발디 / Vn. Solo 시명운

09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x 영도문화예술회관







지구를 위한 영도의 손길

환경합창가 이승미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9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영도문화예술회관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10



10 젊은소리쟁이

젊은소리쟁이

2007년부터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과 춤을 전공한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이다. 연희자 개개인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가·무·악·연희를 총체적으로 겸비하고자 훈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민속음악, 무속음악, 연희를 중심으로 예술적 가치를 살리면서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2023년 부산 민속예술관의 상주단체로 선정되어 연희극, 탈춤, 국악과 춤의 콜라보 무대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국 전통 무속음악과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종합예술의 형태인 가·무·악·연희를 추구하며, 전통의 계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통 발전의 기반은 창작활동이라는 믿음으로 다양한 실험과 창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리, 춤, 장단, 탈 연희극 등 무형예술을 각각의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하나의 결합 구조로 재구성, 재창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를 토대로 창작화한 작품을 제작 발표하여 공연단체의 예술적 역량 강화 및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인지도 있는 우수 레퍼토리 작품을 통해 지역주민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생활 속의 전통예술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관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더욱 다양한 채널과 형태를 통해 노출되고 브랜드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소외계층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젊은소리쟁이가 추구하는 목표는

1. 전통의 재창조를 통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전통으로써 발전을 추구한다.
2. 작품 속에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3. 관객과의 접점을 늘려 전통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예술이다. 예술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의미 있는 창조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해내기 위해 기술의 제련과 후학 양성을 위한 기반도 중요한 과제이다.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전

부산민속예술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금강공원 내에 위치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예술공간이다. 전통문화 예술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설립되어 전통예술의 진흥과 발전, 문화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관일	2018년 1월 5일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95-46
주요시설	송유당(189석), 야외놀이마당(500석)
공연문의	051-555-0092
누리집 /SNS	www.busanminsok.or.kr www.instagram.com/ busanminsok
장애인석	2석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별과장의 반란

공연개요	
공연명	사물연희극 <별과장의 반란>
공연일시	2023년 10월 13일(금) 19:30
공연장소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
제작	연출 박준식 기획 및 대본 이연주 음악감독 김은경 무대감독 박진숙 안무 류권홍 조명감독 김세진 무대감독 박지희 영상OP 오치훈 진행 김성욱

출연진	[연희] 별과장 김준호 토대장 박준식 곰1 박성규 곰2 류권홍 여우1 배정현 여우2 박지현 사슴 이지수 바다새 박홍준 [악사] 대금 김은경 쟁과리 김정호 장구 이호진 피리/태평소 권혁득 해금 조민수
-----	--



공연 10

<별과장의 반란>

줄거리

본 작품은 별주부전 후속 이야기(시퀀)에 해당된다. 별주부가 용왕을 위해 토끼를 잡아 오는 것에 실패하고 도사로부터 명약을 받아 바다로 돌아왔다는 별주부전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수백 년 후쯤의 이야기가 된다. 별과장은 그 별주부의 먼 후손인 셈이다.

본 작품의 별과장은 또다시 토끼를 잡아 오라는 분부를 받고 육지로 파견된다. 별과장은 왜 자꾸 무고한 토끼를 잡아 오라는 건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임무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키지 않은 일을 계속 맡게 되니 고민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에 회의가 생긴다.

별과장은 비합리적인 조직의 명령체계에 기계적으로 따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의구심을 품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현대인의 상을 반영한다. 결국 이 질서에 수긍하며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야 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위해 박차고 나가야 할지, 다른 꿈을 부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날의 관객에게 선택권을 주어 스토리의 결말을 결정짓게 한다.

“나는 별과장. 용왕청에서 만년 과장으로 일하고 있기에 다른 이들은 전부 나를 별과장이라 부른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용왕청에서 일하고 있지만 직장생활은 만만치 않다...”

(중략)

“올해부터 토끼를 잡으러 다시 산으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거의 600년 만의 일이다.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임무다. 시대가 좋아져서 더 이상 용왕님의 건강을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하진 않다. 그런데 용왕님의 생신 때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산토끼를 잡아다 제사를 올리겠다는 이상한 부서가 생겨났고 그들의 만행을 막을 자는 현재 없어 보인다. 수록양옹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내가 이 어처구니 없는 임무를 맡게 된 것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중략)

“토끼를 찾는 과업은 나에게 너무 버거운 숙제다. 요즘 토끼는 또 옛날 같지 않다는 소문도 들리고... 솔직히 토끼와 마주칠까 봐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나는 어느덧 숲에 와 있다.”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연출의도

조직생활의 비합리와 개인의 자유의지 사이에서의 갈등을 사물연희로 표현하였다.

1. 쟁이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전통예술의 가·무·악·연희가 모두 포함된 종합예술 형태로 구성되었고 특히, 설장구, 소고춤, 팽과리춤, 북춤 등 민속 사물연희의 특징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민속 타악기의 매력적인 특징과 악기마다 어울리는 춤사위와 소리가 결합하여 예술성과 재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창작연희 작품이다.
2. 별주부전의 후속 이야기로 스토리 라인이 있는 연희극이다. 별과장의 선조인 과거(원래 별주부전의) 별주부는 윗선의 명령이라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순된 충성심을 대변했다면, 본 작품의 별과장은 과거의 별주부와는 달리 비합리적인 조직 명령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갈등하는 현대 직장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현실적 입장 vs 도의적 판단, 조직생활의 입장 vs 개인의 자유의지 등 인간 내면의 갈등 문제를 동물 캐릭터를 빌어 부담 없이 접근하고자 한다.
3. 토대장은 연약한 토끼가 아니라 악당들을 물리치고 조직을 이끄는 강인한 리더로 거듭난 토끼다. 토대장은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나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 관객 참여 장치를 삽입하여 극 중 결과를 관객이 선택하게 되는 프레임이다. 극중 인물의 운명이 관객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므로 관객의 참여도는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느껴지며 구경꾼 또는 방관자적인 관객이 아니라 함께 공연을 완성해가는 의미를 갖게 되어 공연에 대한 경험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 갈등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은 없고 열려있는 결말이다. 그래서 관객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결과는 매번 같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임을 시사하고 있다. 관객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연공연을 해도 똑같은 공연이라 느껴지지 않고 기대하게 만드는 묘미가 있다.





2023 공연장 연계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공연 10 <텔과정의 반란>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BUSAN METROPOLITAN CITY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집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집

기획 및 편집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송수경
팀원 공보배
김옥진

(재)부산문화재단
2023-023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5-7234
F. 051)744-7708
H. www.bscf.or.kr

디자인 및 제작
아이디얼

*
본 비평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의견이며,
(재)부산문화재단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 공간소극장 연극 '원 맨 쇼' — 유희성	5
02	극단 더블스테이지 × 부산민주공원 불가해한 진실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 이주영	11
03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 어댑터 플레이스 누구나 알지만 잊고 사는 존재, 그녀(들) <죽음과 소녀> — 김영희	17
04	극단 자갈치 × 신명천지소극장 과감한 도전은 주목하지만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 김소연	27
05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원작의 이야기에 한국적 정서를 입히다 <줄없는 나무인형> — 김지용	35

ISSN 2982-5105



06	극단 해풍 × 북구문화예술회관 시민과 연극으로 함께 하는 역사의 현장 <구포1919> - 배선애	43
07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 용천소극장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한 풍자적 성찰 <우 리들 의친 구, 인간> - 김문홍	51
08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필과 3테너> - 이나리메	57
09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클래식 음악 <비틀어진 사계 속 영도> - 박진홍	67
10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별과장의 반란> - 오세길	73



연극 '원 맨 쇼'

유희성 칼럼니스트/연출가



2023.9.15.(금)-9.23.(토)
 평일 19:30 | 토요일 16:00 (일요일 쉬)
 공간소극장 (T.051.611.8518)

제작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작 박장렬 | 연출 전상배 | 출연 황미애, 조정우

무대 황지선 | 음악 전현미 | 노래작곡 박진규 | 조명디자인 전상배 | 영상 이연승 | 기획 황미란 | 스텝 김동규, 황민진

공연개요	
공연명	원맨쇼
공연일시	2023년 9월 15일(금)~23일(토) 평일 19:30, 토 16:00 (일요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공간소극장
제작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비평 01

<원맨쇼>

연극 '원맨쇼'는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의 원맨쇼'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으로 오래전부터, 동시대에도 여전히 불안함과 안타까운 고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치매'라는 질병에 관하여 본인이나 가족, 주변인들이 다시 한번 건강한 삶의 방식과 치매를 예비하며 겪거나 또는 겪게 될 다양한 상황과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극본을 맡은 박장렬 작가는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극작과 연출 작업을 해 왔던 작가로 서울연극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경남도립극단을 맡아 연극을 통한 예술성과 대중성의 향유를 통한 국민적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있다.

이번 작품 '원맨쇼'는 2017년 12월, 서울 대학로 공유 소극장에서 2인극 원맨쇼로 각 7개 팀으로 8주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이색적인 공연을 한 바 있으며, 공연 제작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공연예술인 모임(이하 지공연)'의 창단 작품이기도 했다.

작품은 부친상을 당한 후 아버지의 빈자리를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크게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엄마까지 어느새 그런 증세를 발견하고 아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되고, 해괴망측하지만 다소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다. 연극 속의 연극적 구조 안에서 엄마를 위한 연극을 하며 그렇게 작품은 진행된다.

치매라는 질병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나, 그 전조 증상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지속하다가 어느덧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증상으로

원 맨 쇼 - 유희성

줄달음쳐 가고 마는, 결코 회복되거나 완전히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현상의 질병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 기술과 과학적인 병리학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치매에 대한 치료약을 찾지 못하고, 그저 조금 더디게 하거나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조금씩 억제하거나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만, 잠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상태, 의료계나 인류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진, 깊고 강한 경종을 울리기도 한 작품이다.

이번에 공연된 ‘원맨쇼’는 부산문화재단의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의 ‘어니언킹’과 대연역에 있는 부산의 공간소극장에서 기획 제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원맨쇼’는 IMF 상황에 사업의 실패로 전전긍긍하다가 술에 의지하며 겨우 삶을 연명하던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되어 결국은 세상을 등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언제부터인가 치매에 걸려, 시시각각 종잡을 수 없는 엄마의 행동과 상태를 지켜보는 아들은 그저 난감하기만 하고, 급기야 그러한 엄마를 위한 엄마의 기억과 생각을 잠시나마 위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엄마를 위한 연극을 시작한다. 아들이었다가, 순식간에 아빠였다가 아들이 되고, 현실이거나 갑자기 환상이거나를 자유자재로 연출하며, 지난 시간 정겹던 시절과 나름 행복한 시간들을 끌어내거나 연장시키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끌어 내며 하루하루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연극 같은 삶을 엄마와 함께 개척해 가는 아들의 상태를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결국은 아들과 엄마의 기억과 시선으로 연극적 실제 상황으로 유추하며, 그 후의 많은 스토리를 개연성 있게 이어가는 내용이다. 아버지를 여의고 난 후, 엄마와 아들에 관한 일상과 기억으로 점철된 일상의 기억과 변화는,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며 따로 또 같이, 각자 다르거나 비슷한 상황에 대한 공감과 각자의 기억에 대한 연민과 상황들에 대한 애뜻한 기억들의 소환으로 울컥하게도 한다.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부산에서 연극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과 대연역에 소개하고 있어 관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소극장의 ‘원맨쇼’는 극장의 규모에 적합한 콘텐츠로서 관객들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고, 부산 소극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리한 선택이었다.

작품의 입소문인지 관객층도 대부분 엄마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도 함께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나에게도,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객석에도 형성되어, 무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집중하는 관객의 분위기가 참으로 남달랐고, 함께 박수치고 호응하며 새롭게 부흥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부산의 소극장 문화운동의 조짐도 엿볼 수 있었다.

작품의 정서를 잊고 환기시키며, 무엇보다도 지난날에 대한 기억소환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운용하는, 더불어 지나간 시간적 정서를 이끌어 내는 음악적 선택과 선곡의 활용은 참으로 효과적이었다.

다소 묵직하고 침울할 수 있는 내용을 음악적 정서와 선곡을 통한, 시대와 감성을 유추한 엄마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고스란히 끄집어내거나, 정서적 환기될 뿐 아니라 시원한 바람 같은 유머와 위트까지 더해져, 다소 건조할 수 있는 작품에 윤기와 생기를 불어넣었다.

빈 듯하지만 필요한 대, 소도구를 활용한 무대 구성은 적절했으며 작품의 전개에 적절한 암전과 음악을 통한 변환의 정서 또한 작품을 매끄럽게 이어가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엄마역으로 분한 황미애와 아들 역의 조정우의 명료한 대사 전달과 극적 상황에 적합한 감정 연기와 상태, 몸을 사리지 않은, 혼신을 다한 열연은 작품에 생명력을 이끌어 갔으며, 무엇보다도 작품에 온전히 이입되고, 때로는 함께 웃고 즐기고 연신 눈물을 흘쩍이며 작품 속에 완전히 동화된 듯한, 부산의 관객분들의 관극 태도가 작품을 완성시켜 주었다.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과 공간소극장의 룹런하는 좋은 레퍼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극단 더블스테이지 x 부산민주공원

02

2023 공연장연계에속단체목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전

01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x 공간소극장

불가해한 진실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이주영 연극평론가



공연개요	
공연명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공연일시	2023년 9월 22일(금)~24일(일) 금 19:30, 토·일 15:00
공연장소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
제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비평 02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예술에서 진실의 상대성은 익숙한 주제이자 소재라 할 수 있다. 이 낯익은 반복은 그만큼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 여정의 끝에 목도한 진실이 자신의 예상을 배반하여 그 유무를 의심하기에도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은 낯익지만, 여전히 해석을 기다리는 미지의 존재로 자리하기에 여러 예술 작품에서 다양한 낯섦의 방법으로 반복되는지 모른다. <매미가 운다: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닌 국밥집> (작 김지숙, 연출 김동민, 이하 <매미가 운다>)이 주목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목표점이 아닌 진실의 모호성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를 주목하게 만든다.

극이 아닌 지금/여기

<매미가 운다>는 작품 공간을 극장 안 무대에서만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 극장 밖으로까지 확장한다. 보통의 경우, 관객이 객석에 착석하고 난 뒤부터 공연이 시작되나, 본 작품은 극장 밖 로비에서부터 공연을 시작한다. 관객들은 티켓을 교환하고 공연 시작 전까지 로비에서 대기한다. 그런데 로비의 모습은 말끔하기보다는 곳곳에 붙어 있는 폴리스라인과 바닥에 그려진 살인 사건의 마킹으로 인해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난 장소처럼 보인다. 본 작품이 장소 특정성 연극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그럴 의도의 작품도 아닌 듯하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극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를 획득한다.

극적 공간의 확장과 그곳의 모습만 주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현장을 공고히 하듯 로비에 설치된 TV에서는 여러 사건 사고를 다룬 뉴스가 흘러나온다.

불가해한 진실 — 이주영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정유정 사건, 부산 사인펜 살인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고문 조작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사하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들을 다루고 있다. 사건 장소, 극장 위치, 관객의 예상 주거지 등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이 나열된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된 브라운관 너머의 뉴스가 아닌, 관객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연극 관람이라는 삶의 이벤트는 지금/여기라는 현실로 이동한다.

어느 순간 로비에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폴리스라인이 제거된다. 새로운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관객들은 극적인 상황과 좀 더 가까워진다.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이때 번호표를 얘기하는 스태프의 음성이 들려온다. 관객들은 이 음성과 함께 로비에서 펼쳐진 극적 세계와 단절된 현실로 다시금 이동한다. 이는 환기의 효과도 있겠으나, 관객들이 번호표라는 현실의 목소리가 아닌,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극장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생각만큼 어려운 작업도 아니기에) 극적 세계 및 관객의 관극 몰입도와 호기심이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극장 안에 들어서면 세 면의 객석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미 로비의 풍경에서부터 연출적 고민을 파악할 수 있었듯이, 객석 배치를 일방향이 아닌 다각도로 배치함으로써 무대 또한 극적 환영이 강조된 일반적인 프로시니움 무대를 거부한다. 어느 객석에 앉느냐에 따라 무대를 향한 시각이 달라진다. 물론 객석이 세 면으로 이루어졌어도 관객들은 고정된 한자리에 앉아있기에 한 측면만을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다각적 배치, 즉 연출적 의도를 통해 관객은 이 작품을 객관적이고 다각적 시선으로 사유할 준비를 한다.

삼 면이 오픈된 무대는 관객들에게 다층적 사유라는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배우들에게는 그만큼 연기 과정에서 노출이 넓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선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3층으로 설정된 공간에 위치한 객석에서는 배우의 연기를 보기가 힘들었음) 부담스러운 무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미가 운다>는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심리가 전경화된 작품이기에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 등장하는 세 배우의 호연으로 인해 관객들은 무대에 집중하며 작품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집중의 즐거움은 얽히고설키는 진실의 모호한 향방,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리적 플롯으로 인해 더욱 배가 된다.

도착할 수 없는 진실

<매미가 운다>는 영도(김유민 분)가 요리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가는 당일부터 시작한다. 아들의 이 선언과도 같은 사실을 영도의 아버지(손상훈 분)는 어제야 들었다. 이어지는 둘 사이의 건조한 대화를 통해 부자 사이지만 그리 매끄러운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자지간의 모습은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단, 아버지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노동을 했던 영도의 친구인 기택(손창민 분)이 아버지의 살해범으로 영도를 지목하는 순간, 냉랭했던 부자 사이의 과거는 '영도=범인'일 수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전사가 된다. 문제는 영도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품은 이때부터 관객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진실 찾기 미션을 부여한다.

관객들은 이 미션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한 여름임에도 계절감을 비껴간 10년 전과 똑같은

영도의 옷차림, 잘려 나간 가스 호스와 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 국밥을 만들겠다는 기택의 태도 등이 연쇄하면서 진실의 향방은 모호해진다.

결정적으로 기택에 의해 영도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미가 운다>는 사실성으로부터 멀어진다. 추리 해결 과정은 과학적/객관적 증거와 이성적/논리적 사고를 그 바탕으로 둔다. <매미가 운다>에서의 진실 찾기는 추리의 영역을 벗어난 셈이다. 아울러 영도와 기택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기택의 생존유무까지도 의심하게 만든다. 진실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조차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 불가해한 현상은 지금/여기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앞서 로비의 TV에서 흘러나왔던 뉴스 속 사건 사고들이 그것이다. 작품 속 아버지의 죽음을 사회의 비극적 맥락에서 영도의 패륜적 사고로 해석해볼 수 있다. 아울러 영도에게 가한 기택의 가스라이팅으로도 사회적 비극을 논할 수 있다. 단, 그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영도, 영도와 기택의 전사가 좀 더 탄탄해져야 한다. 이 불가해한 비극은 기택의 전사를 통해 분명해진다.

의지할 곳 없었던 어린 기택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넨 영도의 아버지, 단, 영도 아버지의 온정은 그날뿐이었다. 이후 기택은 영도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삶을 버텨야 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이 참혹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일까. 그런데 이 불가해한 비극은 작품 밖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매미가 한없이 울어댄다. 이 울음은 마치 지금/여기를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경고는 하되 <매미가 운다>에서의 진실은 해석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다. 그래서 더욱 먹먹하다. ¶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x 어댑터 플레이스

03



누구나 알지만 잊고 사는 존재, 그녀(들) <죽음과 소녀>

김영희 연극평론가/경성대학교 미래인재교양학부



공연개요	
공연명	죽음과 소녀 (DEATH AND THE MAIDEN)
공연일시	2023년 10월 13일(금)~22일(일) 평일 및 주말 19:30 (수요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어댑터 플레이스
제작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1. 한 치의 틈도 없이 밀도 있는 드라마

흔히 칠레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우리는 파블로 네루다를 떠올린다. 하지만 <죽음과 소녀>를 만나는 순간 칠레의 작가로 아리엘 도르프만을 주저 없이 추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피노체트가 장악한 군부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고 다시 칠레로 돌아온 아리엘 도르프만은 소설과 희곡을 써온 작가이다. 그는 정치와 문학 사이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 치열하게 쓰고 일관성 있게 고민한 작가로 주목받는다. 한국에서 <죽음과 소녀>는 1992년 4월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된 바 있으며(손진책 연출) 이번에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이하 극단 배관공)에서 공연한 <죽음과 소녀>는 부산 초연으로서 의미가 있다.

<죽음과 소녀>(1990)의 해설을 잠시 보자. 해설에는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현재이며 공간적 배경은 칠레일 수도 있지만 오랜 독재 기간이 끝난 직후 민주 정부가 들어선 경우라면 어느 나라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죽음과 소녀>가 어느 공간의 특수한 서사가 아니라 독재 권력에서 민주 정부 이행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칠레는 1973년 군사혁명을 통해 피노체트 군부독재가 정권을 잡은 후 민주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빼앗고 짓밟았다. 많은 사람은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살아남아서도 폭력과 고문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하다. 박정희로 출발한 군부독재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민중이 고문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의문사와 실종으로 운명을 달리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완전히

* 이 글은 월간 「한국연극」 2023년 12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적점에 있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쓴 희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낯설지 않게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이처럼 유사하기 때문이다.

<죽음과 소녀>는 3막 8개의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7개의 장면은 한밤중 의사의 출현 이후 이들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이고, 마지막 8장은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 이야기이다. 7개의 장면이 연극의 중요 서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마지막 장은 에필로그이면서 동시에 주제를 환기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밤 한 의사가 빠울리나의 집을 방문한다. 그는 조금 전 저녁, 남편인 헤라르도의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다. 늦은 밤이라서 다시 돌아가기 힘든 데다가 남편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의사를 집에 재우기로 한다. 의사가 도착하는 순간, 집 안에 숨어 의사의 목소리를 듣던 빠울리나는 그가, 15년 전 자신을 성고문하던 의사임을 바로 알아차린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던 목소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고문 당시 25살, 눈이 가려진 채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가 흐르는 가운데 고문당했다. 시각이 차단된 그녀에게 청각은 더욱 또렷해져 그녀를 고문하던 의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목소리가 최초의 결정적인 증거이지만 그녀를 스치던 피부 촉감과 체취도 사소하지만 잊을 수 없는 증거이다.

확신에 찬 그녀는 우선 남편 몰래 그를 결박하고 그를 심판하고자 한다. 오래전 자신이 당했던 대로 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되갚아 주려고 한다. 허나 영문도 모른 채 포박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의사. 빠울리나가 기억하는 의사가 자신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그들 부부 앞에 있다. 그가 정말 그녀를 고문했던 의사가 맞는가.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그에게 죄를 물을 것인가. 이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대립한다. 아내는 고문 피해자의 당사자이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지만, 현재 그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의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직책을 맡은 상태이기도 하다. 부부이지만 폭력 피해 당사자로 법을 믿지 않는 아내와 비록 아내의 일이지만 이성적인 태도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편의 입장이 예민하게 각을 세운다.

연극은 오래전 있었던 성고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에 남편과 아내의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관객은 그들의 혼선과 혼돈을 같이 통과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인물의 대사와 행위를 통해 직접 드러내는 연극은 마치 진실게임을 하는 듯, 부부의 감정을 한 치 틈도 없이 결과를 향해 밀어붙인다. 희곡 읽기만으로도 즐거운 감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리엘 도르프만이 작품의 최초 단상을 떠올리고 이를 어떤 장르로 녹여낼 것인가 고민했을 때, 그는 주저 없이 희곡으로 결정, 3주 후에 탈고했다고 한다. 갑자기 집에 출현한 의사의 과거를 둘러싼 아내와 남편의 대립과 견해 차이, 진실을 찾아가는 긴장감은 희곡 장르를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한다. 허나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의 몸이 주는 물성(物性)과 등장인물이라는 인격을 통해 관객들 앞에서 직접 재현되면서 더욱 빛을 발한다.

2.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무대표현

연출을 맡은 주혜자는 3막 8장의 긴 이야기를 슬기롭게 잘라낸다. 칠레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대사들을 잘라내고 빠울리나와 헤라르도 그리고 로베르토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종일관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에서 연출가의 내공은 무대에서 맘껏 피어난다.

연출가는 한쪽 면만 개방된 프로시니엄 무대가 아닌, 객석 쪽으로 돌출된 무대도 아닌, 그렇다고 마당도 아닌 전혀 새로운 무대를 만든다. 극장의 중앙에 출입구와 나란하게 긴 사각형 무대를 새로 만들고 객석을 양쪽으로 배치하면서 무대는 관객에게 싸이고 관객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직사각형 무대 한쪽 끝은 빠울리나 집의 외부와 방의 공간이다. 반대편에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다. 테라스 창문은 실제 극장의 창문이고 창문 너머 광안리 바다가 보인다. 결과적으로 연극과 현실이 묘하게 공존하는 무대가 완성된다.

중앙에 배치된 무대 구조는 관객이 심리적으로 연극 사건에 깊이 들어가 몰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관객이 생생한 목격자가 되도록 한다. 그것은 의사를 둘러싼 아내와 남편의 대립에 관객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객의 시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는 더욱 과장되어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인상적인 것은 극 중에서 빠울리나가 창문 넘어 바다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빠울리나는 극장의 실제 창문에 앉아서 창문 넘어 광안리 바다를 보는 것이다. 진짜 바다를 극의 공간으로 끌고 온다는 점이 신선하다. 실제 공간을 극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연극 속 사건은 우리가 사는 현실로 확장된다.

관객들에게 개방된 무대이지만 동시에 무대 공간은 어둡고 폐쇄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조명은 어둡고 주인공들은 불편한 통로와 단차가 심한 공간을 오르내리면서 연기를 한다. 긴 세월 동안 자신 안의 공포와 살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해온 빠울리나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둡고 불편한 무대이다. 동시에

빠울리나의 조급함과 남편의 답답함 그리고 로베르도의 위기감을 미궁 같은 무대로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빠울리나 역을 맡은 배우(홍승이 扮)의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은 과거에 자신을 유폐시킨 이 독특한 공간에서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3. 거울과 조명, 성찰의 무대장치

빠울리나는 로베르도의 자백을 받고 용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로베르도는 거짓 자백으로 빠울리나의 비위를 맞추고 위기를 벗어나길 바란다. 로베르도의 자백은 끝났다. 헤라르도가 로베르도의 차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로베르도와 빠울리나만 무대에 남는다.

자백했으니 로베르도는 범인이 틀림없다. 허나 거짓 자백이니 범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빠울리나가 헤라르도에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베르도가 자백서를 쓰는 중에 로베르도는 스스로 틀린 정보를 고쳐서 쓰게 된다. 빠울리나가 흘린 거짓 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고쳐 쓴 것이다. 이제 빠울리나는 목소리, 피부, 체취가 아닌 확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로베르도가 정말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빠울리나는 로베르도가 과거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지만 로베르도는 이를 거부한다. 총을 든 빠울리나와 자기 죄를 거부하고 빠울리나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로베르도의 정치화면에서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커다란 거울이 천장에서 내려온다. 이 장면을 희곡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빠울리나와 로베르도,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거울에 의해 가려지는데, 이 거울은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몇 분 동안 모차르트의 사중주가 들리는 사이, 관객들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게 된다. 몇 개의 천천히 움직이는 스포트라이트가 관객들을 훑으면서 아래 윗줄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 번에 두세 명씩을 비춘다.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음악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울은 상당히 연극적이다. 분명 전신을 비추는 큰 거울일 것이다. 거울은 방금까지 대립하던 두 사람, 문제의 당사자를 감춘다. 거울 안에는 지금 연극을 보는 관객이 보인다. 관객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관객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몰입에서 벗어나 낯선 감정을 만난다. 무대 위 거울은 동일성을 벗어나 성찰의 오브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연극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현실 속의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순간, 연극은 살아가는 현실이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극적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때로는 폭력에 방관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관객의 문제로 침투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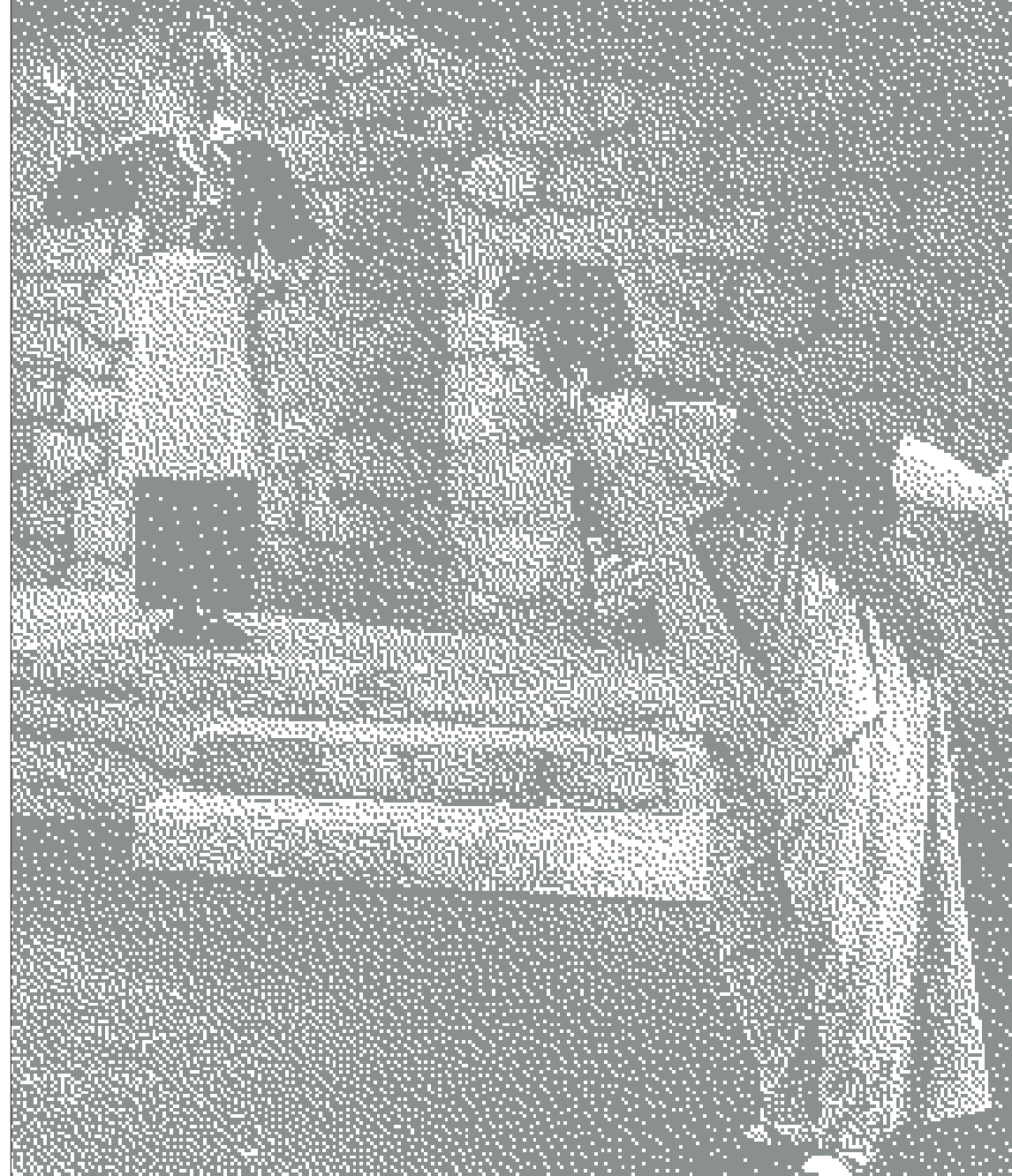
허나 이번 공연에서는 거울은 내려오지 않고 연극 시작부터 공중에 달려 있다. 벽이 아니라 공중에 달린 거울은 상식적이지 않다. 낯설고 어색하다. 희곡을 읽으면서 상상되던 멋진 장면을 연극에서 보기는 힘들다. 대신 연극은 스포트라이트를 관객석에 비추면서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잊고 있던 빠울리나에 대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의자’를 내밀어 준 적이 없어서 자기 얘기를 하지 못했던 빠울리나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원만한 법적 해결이라는 이유로, 과거는 묻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진심 어린 공감을 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용서할 기회조차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 마침내 빠울리나는 공개된 장소인 극장에서 ‘죽음과 소녀’ 연주를 듣는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지만 고문 이후 들을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음악을 이제 대중 속에 섞여 같이 듣는다. “삶에 대해 그렇게 슬프고 고귀한 감각을 가진” 슈베르트의 음악, 허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틀지 않기를 바라던 음악”을 이제 그녀는 들을 수 있다. 설령 그 자리에 로베르또 같은 인간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로베르또를 향해 충을 한번 들었던 그녀는 이제 그녀의 음악을 듣는다. ¶

극단 자갈치

× 신명천지소극장

04



과감한 도전은 주목하지만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김소연 연극평론가



공연개요	
공연명	파우스트와 카바레뜨
공연일시	2023년 6월 9일(금)~10일(토) 금 20:00, 토 17:00
공연장소	신명천지소극장
제작	극단 자갈치

극단 자갈치는 1986년에 창단 이래 전통연회를 기반으로 한 마당극을 꾸준히 발표해 온 연륜 있는 극단이다. 양식적 특징만이 아니라 창단 초기 발표한 형제복지원 문제를 다룬 <복지에서 성지로>를 비롯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극작업 역시 활발하게 벌여왔다. 한 극단이 특정한 양식과 방법론에 대한 탐구와 사회적 문제의식을 버려왔다는 것은 이들의 연륜을 더욱 소중하게 한다.

이러한 역사성에 비추어 <파우스트와 카바레뜨>는 극단의 도전적 작업이다. <파우스트>라는 고전을 선택한 것이 그렇고, ‘카바레’라는 낯설다면 낯선 형식의 선택이 그렇다.

카바레라고 하면 화려한 쇼가 벌어지는 식당 혹은 주점을 떠올리게 되지만, 예를 들어 뮤지컬 <카바레>가 그런데, 단지 쇼를 즐기는 공간인 것만은 아니다. 카바레는 패러디극 무언극 강연 무용 등이 공연되고 산문이나 운문 형식의 작품이 공연 혹은 낭독되었고, 직업 배우, 아마추어, 작가 등을 가리지 않고 무대에 섰으며 당면한 정치 사회 예술 등에 대한 예리한 풍자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분방한 예술행위가 벌어지던 공간이다. <파우스트> 역시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괴테의 이 희곡은 괴테 문학의 정수라 자주 언급되지만, 괴테가 희곡을 발표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자주 공연되지는 않는다. 파우스트 박사와 메피스토펠레스의 여정으로 전개되는 희곡은 방대한 시공간이 전개되면서 발표 당시 공연을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레제드라마, 즉 읽기 위한 희곡으로 받아들여졌다. 현대연극에서야 이러한 희곡의 특징이 연출적 난제인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무대화의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파우스트> 공연은 괴테 희곡 전편이 아니라 희곡의 1부만을 다룬다.

<파우스트> 1부는 악마와의 계약, 사랑, 우연한 살인, 영아 살해와 죽음 등 선정적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그레첸의 죽음을 통해 2부의 여정을 예비하고 있는데 괴테가 <파우스트>에 담고 있는 성찰은 2부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1부 공연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극단 자갈치는 지난해 같은 제목으로 이 방대한 희곡을 네 편의 단편으로 다루었다. 강연과 대화 그리고 공연이 4주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한 작가 연출가들은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장면을 선택하고 재창작에 가깝게 분방한 형식으로 단편들을 올렸다. 마치 카바레에 올려지던 분방한 공연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올해는 그중 두 편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와 <생각의 탄생>을 이어 올렸다.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는 원작에 등장하는 직공, 시민, 학생을 익명의 군중으로 연출한다. 마임과 춤으로 이루어진 움직임으로 무대를 중횡하는데 움직임 사이사이 원작의 대사가 전개되지만 조각나 있고 이 때문에 각각은 개별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익명의 군중으로 다가온다. 이 익명의 군중들은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움직임은 추상화되어 있지만 대립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조각난 대사들이 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내뿜는 분노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직공, 시민, 학생들의 군중 코러스가 전개되는 가운데 대천사들이 등장하고 신, 메피스토펠레스, 그리고 파우스트가 등장한다. 역시 원작에서 발췌된 대사들이지만 이 세 인물(군)은 군중들에 비해 또렷하다. 화가 난 군중들은 어지럽게 방황하고 있고 그러한 세계 가운데에서 고뇌하는 파우스트가 있다. 그리고 그런 파우스트를 두고 신과 악마의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원작에서 프롤로그는 파우스트 박사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계약이 결국 신과 악마의 대결이라는 것을 예비한다. 반면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에서는 군중들의 비중이 크게 다가온다. 신과 악마의 게임은 화난 군중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군중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중들의 비중이 커졌지만, 군중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는 모호해졌다. 직공, 시민, 학생 등은 구별되지 않는데, 움직임이나 의상 등의 시각적 요소는 물론이고 발췌된 대사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들이 내뿜는 대사들이 조각나면서 이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모호해졌다.

장구를 맨 산발이가 등장하여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와 <생각의 탄생>을 잇는다. <생각의 탄생>은 무대화되지 않고 있는 제2부 2막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 이야기다.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가 전통연희에 매이지 않고 움직임 등을 구성한다면 <생각의 탄생>은 괴테의 희곡과 꼭두각시놀음을 겹쳐놓았다. 형식적 변안이다. 무대 한편에 산발이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한편 장막 위에서 꼭두각시놀음이 펼쳐진다. 박침지 인형이 파우스트로 흉동지 인형이 메피스토펠레스다. 꼭두각시놀음의 인형들과 산발이의 덧거리를 변형한 인형극으로 장면을 열고 이어서 인형들을 꼭 닮은 모습으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한다. 능청스러운 농담 같은 이러한 전개는 호문쿨루스 장면에서도 이어진다. 바그너는 호문쿨루스를 충전한다면서 아이들의 놀잇감인 스카이콩콩을 뛰고, 호문쿨루스의 놀라운 능력은 바그너가 보고 있는 섹스 비디오의 모자이크를 제거해주는 것이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호문쿨루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DDR 판을 깔아주는가 하면 호문쿨루스의 타임머신은 거대한 새총처럼 고무줄을 한껏 당겨서 튕겨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의 탄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B급 농담이다. 꼭두각시놀음 인형의 행색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꼭두각시놀음의 질편한 재담과 파격적 전개로 괴테의 희곡, 인물, 말, 상황, 사건을 고쳐 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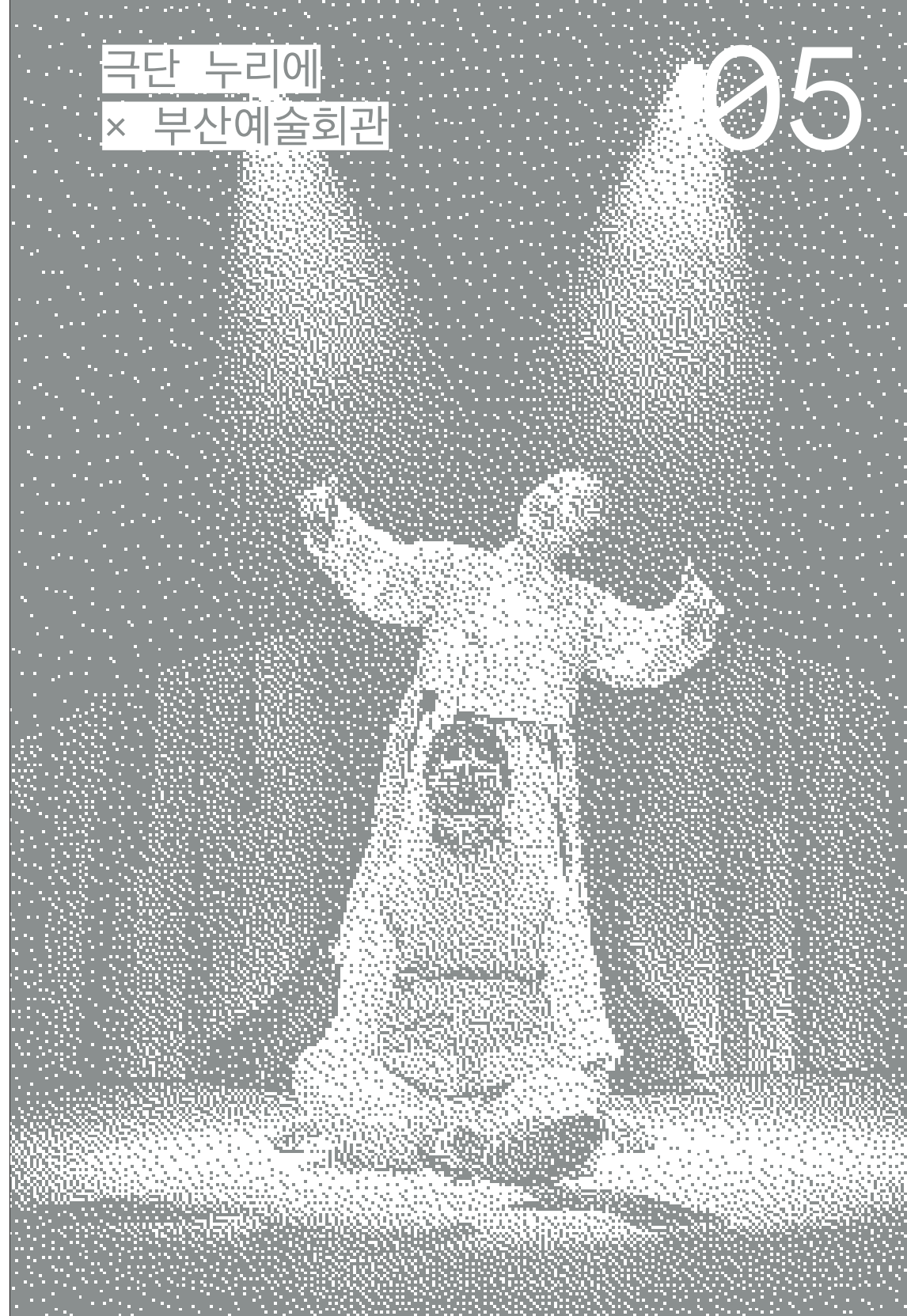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전개가 괴테와 꼭두각시놀음에 대한 새로운 읽기, 새로운 해석 혹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붉은 몸의 나신에 거대한 성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흥동지의 파격이 메피스토펠레스에서는 그저 힘으로만 남고, 인조인간 호문쿨루스를 만든 바그너가 섹스 비디오에 탐닉한다는 에피소드는 생명의 탄생에 대한 담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꼭두각시놀음의 인형들로 장면을 여는 등 꼭두각시놀음의 차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지만 이후의 전개에서 꼭두각시놀음은 B급 농담으로 형해화되어 있다. 괴테도 꼭두각시놀음도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겨진다.

극단 자갈치의 도전은 아직 그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파우스트> 읽기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자신의 방법론과 스타일을 ‘카바레’라는 분방한 형식 속에서 어떻게 버려낼 것인가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방식의 변안, 재창작이 독자적인 공연이기 위해서는 <파우스트> 원작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독립된 이야기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나 <생각의 탄생>은 원작을 겹쳐놓지 않는다면 공연의 전개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데에는 연출이나 연기의 문제도 함께 있다. <파우스트 그 프롤로그>에서 코러스의 비중을 크게 높였지만 모호한 움직임과 장면 연출로 인해 원작의 인물들은 익명의 무리들로 남겨진다. <생각의 탄생>에서 꼭두각시놀음은 변안의 참조형식을 드러낼 뿐 꼭두각시놀음의 파격, 분방한 웃음으로 나아가지도,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도 나아지지 못한 채 모호하게 남겨진다. 그러나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여진의 ‘호문쿨루스’는 주목되었다. 형식을 드러내는 데에 멈추지 않고 명료한 움직임과 상황의 구축 등에서 꼭두각시놀음의 분방한 재담과 괴테 <파우스트>의 교차를 보여준다. ¶

극단 누리에
× 부산예술회관

05



원작의 이야기에 한국적 정서를 입히다 <줄없는 나무인형>

김지용 극작가/연출가



공연개요	
공연명	줄없는 나무인형
공연일시	2023년 7월 21일(금)~23일(일) 금 19:30, 토 11:00/14:00, 일 14:00
공연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제작	극단 누리에

국내 아동/청소년극 제작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을 따르고 있다. 하나는 유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둔 파생상품으로써의 공연이다. 대형 기획사에 의해 독점 계약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뮤지컬 형식의 이런 어린이 공연은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꽤 많고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기대와 어긋나게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왕왕 있다. 다른 하나는 전래동화와 명작을 재구성하거나 아예 새롭게 창작된 공연이다. 어린이 전문극단이나 기성 극단, 간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극장에서 제작하는데 관객 유치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재정이 빈약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어린이극은 꼭 차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호응을 얻기가 수월한데 지역의 제작단체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축소 지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공연도 관객의 외면을 받는다. 결국 어린이들은 이야기가 건네주는 상상력, 서사가 지니고 있는 주제에 대한 사고의 기회, 교육적 교훈은 얻지 못한 채 말초적이고 오락적인 자극에만 길들여지게 된다.

그래도 그나마 어린이극은 상업적 수요가 있어 제작되고 있지만 청소년극은 아예 답이 없다. 연령대 자체가 이들이 어린이극을 보기엔 유치하고, 성인극을 보기도 애매한 지점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업과 성적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청소년들의 공연 관람을 막는 주적으로 작용한다.

각설하고, 극단 누리에는 정통 연극을 추구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순수 공연 예술 제작 극단이다. 작품 제작의 저력을 가진 극단이 선보이는 어린이 연극은 과연 어떠한가 몹시 기대가 되었다.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전 세계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널리 알려진 동화다. 원작의 이야기는

다양한 이야기로 변용되어 왔다. 아주 오래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우주소년 아톰 등을 비롯해서 당대의 어린이들을 매료시켰던 메카 물의 대부분은 피노키오 서사의 대체물이다. 아니, 피노키오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일 터. 주류와는 다른 이종의 생물이, 내재된 속박과 외부의 장애물을 넘어 성공과 완성에 이르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보편적이면서도 집단무의식적인 정서에 기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극단 누리에의 ‘줄없는 나무인형’은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정서를 입힌 결과물을 선보였다. 장승과 삼신할매 설화가 융합된 이 연극은 각각의 내러티브가 섞이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잘 흘러갔다. 안타고니스트로서의 마마신도 좋은 아이디어였다. 마마신으로 바뀐 원작의 로렌지니 역시 인간보다는 악마적 특성이 더 강한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피노키오는 솔, 제페토는 제씨, 귀뚜라미는 이십이, 파란 요정은 삼신할매, 그 외에도 바지, 윗도리, 개똥이 등 한국적인 느낌으로 바뀐 데다 공연을 이루는 시청각적인 요소들 역시 한국적인 느낌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야기의 큰 흐름은 카를로 콜로디의 원작을 따르고 있었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첨삭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 ‘줄없는 나무인형’ 공연은 ‘피노키오의 모험’을 각색/윤색했다기보다는 재구성/재창작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긴 하지만 전통 연희는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을 뿐 크게 두드러지는 않았다. 전통적인 연행이 구사하는 기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불과 몇 달의 연습으로는 시각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었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이라든가 소품들의 만들새를 통해 디테일을 확보하려고 한 의도와 수고가 돋보였다.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타악을 활용하여 창극이나 판소리를 연상케 하는 지점들이 좋았다. 연주자들이 극에 개입하는 서사적 입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때때로 웃음을 주는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날 부산예술회관 객석의 상황은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들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내심 매우 험난한 관극이 되겠구나 단단히 각오를 해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막이 오르고 전체 배우들이 오프닝넘버와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니 객석이 요동쳤다. 그러나 이야기의 진행이 가속화되자 이내 조용해졌다. 어린이 관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집중하는 무리와 아직은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극을 즐기는 무리로. 전자는 대개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이고, 후자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이다. 나이가 같아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어린이들의 성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상 관람 가능 연령은 5세 이상이었다. 관극 후 개인적인 추측은 타겟 관객층을 초등학교 정도를 잡고 제작했겠구나 싶었다.

무대 위는 천정을 향해 볼록한 반원 형태의 단상만 있었다. 이 단상은 수직으로 갈라지고,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해서 각 장면의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간결함이 제공하는 미덕이 있었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에서는 좀 더 풍성한 무대장치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이 구사하는 서사의 속도나 밀도에 근접하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배회하는 어린이들은 무대장치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단상도

그 기능에 비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진 않았다.

공연 관람을 마치고 드는 전체적인 느낌은 아이디어의 연결이 매끄러워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점이었다. 산만해질 수 있는 요소인 삼신할매, 마마신, 그리고 여러 한국적인 설정이 원작에 잘 녹아들어 하나의 작품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극의 중반에 이르면 리듬이 늘어져 한동안 지루한 감이 있었다. 물론 모든 장면을 긴장으로 이끌 수는 없다. 이완된 장면이 있어야 긴장도 효과가 크다. 다만 이완된 장면이 ‘술’의 고뇌나 ‘제씨’의 부성애를 중점적으로 배치했다라면 극적인 리듬감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주인공 ‘술’의 성장이 부각되어야 하며, 이 성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로 획득해야 주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되는데, 이번 작품은 ‘술’을 둘러싼 외부적인 위협을 제거하는데 좀 더 몰두하는 듯했다.

주인공인 ‘술’은 본질적으로 외로움, 소외감이 자아내는 비애를 훨씬 더 많이 품고 표현해야 했다. 진짜 인간 어린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이런 비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모험이라는 과정 속에서 욕망은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과 끔찍한 좌절을 겪는다. 그렇지만 사랑과 희생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욕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제작되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공연들만 쏟아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극단 누리에게 제작한 ‘줄없는 나무인형’은 우리 연극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한 점은 이 공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

극단 해풍

× 북구문화예술회관

06



시민과 연극으로 함께 하는 역사의 현장 <구포1919>

배선애 연극평론가



공연개요	
공연명	구포1919
공연일시	2023년 9월 14일(목)~17일(일) 평일 19:30, 토 17:00, 일 15:00
공연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제작	극단 해풍

비평 06 <구포1919>

부산 북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해풍의 연극 <구포1919>(작/연출 이상우,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2023년 9월 14일~17일)가 관객들과 만났다. 1919년 당시 구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현장감을 관객들과 함께했다. 예술적 미학이나 연극적 완성도라는 일반적인 잣대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공연의 생동감은 이 작품의 큰 미덕이었다. 그럼에도 단체에서 이 작품을 ‘브랜드 공연’으로 명명했으니,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작품의 몇 가지 특징과 보완할 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포’에 특화된 내용과 형식

대체로 지역에서 레퍼토리 공연이 된 작품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설 등을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매우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구포1919>도 예외는 아니다. 1919년 당시 3·1독립운동 소식이 전국에 퍼지고 부산에서도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동래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구포 역시 3월 29일 구포 장날에 만세운동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역사의식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며, 잘 모르는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인식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구포1919>의 소재는 3·1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동시에 구포에서의 만세운동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감대를 생성하고 확장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구포구민이라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역사 고증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객들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시민과 연극으로 함께 하는 역사의 현장 — 배선애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무대 참여 단체와 인원의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극단 해풍의 단원들은 물론이고 ‘실버극단 청춘은 봄’에 속한 노년 배우들, ‘시민극단 감동진’의 시민배우들, ‘청소년극단 별숲’의 청소년 배우들, ‘어린이극단 소풍’의 어린이 배우들, 거기에 ‘전통종합연희단체 풍류인’의 전통 예인들까지 합류했다. 남녀노소, 전문/비전문, 전통연희까지 합세한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구포 만세운동 당시 구포 사람들의 일상적 면모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였다. 성인 위주의 독립운동 사명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십상인 소재였지만 여러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이 무대 위에 존재함으로써 마치 구포 만세운동 당시의 현장을 목격하는 듯한 역동성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무대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의 문장을 나누어 읽음으로써 모든 존재가 만세운동의 참여자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다양한 구성원의 장점은 작품의 형식에서도 드러났다. 구포장터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 전통연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전통종합연희단체 풍류인’이 중심이 된 공연은 풍물놀이의 여러 구성들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12발 상모돌리기는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이러한 풍물놀이가 공연의 초반 분위기를 창조하면서 생동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기능적으로 활용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극이 시작된 후 만세운동의 중요한 인물로 꼭두쇠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창작진의 의지가 돋보인다.

관객들과 교감은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졌다. 공연이 시작되면서 마치 길놀이처럼 풍물이 연주되는 흥겨운 분위기가 객석 뒤에서부터 만들어졌다. 무대로 향하는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엿도 주고 말도 건네면서

친근함을 표했다. 이것은 이 공연의 지향점이 관객과 함께한다는 것임을 보여준 장면이다. 거기에 만세운동을 시작할 때 배우들이 객석에 내려와 관객들에게도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무대 위 사건은 과거의 역사이지만 관객들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부터는 현재의 일인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을 없애고 동질감과 현재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의도한 대로 관객들은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면서 마치 1919년 구포장터 한가운데에 있었던 듯 만세를 외쳤고 그 자체가 함께 하고 있다는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거칠고 투박한 부분은 살짝 더 매끄럽게

관객과의 적극적 관계를 통해 현장성과 역동성을 구현한 <구포1919>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연극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유쾌하고 즐거운 작품이었지만 전반적으로 거칠고 투박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공연장이 대극장이었기 때문에 배우들은 마이크를 사용했다. 마이크는 대사의 전달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목표인데, 여러 인물의 대사가 겹쳐서 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구포장터 사람들이 둘러앉아 훈이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보면 마이크를 통해 들려야 하는 대사는 훈이의 대사다. 그런데 다른 배우들도 마이크를 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웅성대는 소리마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누가 말하는지 방향도 파악되지 않는데 큰 소리의 대사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으니 훈이 대사에 집중이 안 됐다. 아직은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충분히 활용 방법을 숙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음향감독을

중심으로 마이크 볼륨을 조절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구성원이 이 작품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무대 위 경험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편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거칠다는 느낌은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 등·퇴장의 어수선했음, 정리되지 않은 동선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관객 앞에 선다는 긴장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단체별로, 인물별로 등·퇴장과 움직임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 배우들도 무대를 충분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동선과 등·퇴장도 연극적 약속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극은 관객들과 만나는 순간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예술이다. 무대 위 공간 활용과 움직임에 대해 조금만 더 과감하게 정리한다면 다양한 구성원의 장점이 더욱더 돋보일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장군신과 삼신할매가 고민되는 부분이다. 구포 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 장군신과 삼신할매는 환상적 요소이기에 매우 이질적이다. 우리의 만세운동에 영적인 기운이 깃들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실제 작품 속에서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이고, 독립운동과 사랑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나름의 해안을 제시하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상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신사를 짓겠다는 일본 순사와 신당을 지켜야 한다는 만신의 갈등, 이것이 구포 만세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재미있으면 됐다고 하기에는 구포 만세운동의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연극적으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구포1919>는 구포시민들과 함께 연극으로 체험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다른 지역의 다른 극장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현장성과 역동성은 구포라는 공간에 최적화된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관객들과 함께 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한 결과가 <구포1919>다. 게다가 공연장 상주단체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연극작업을 지속하면서 그 결과로 함께 무대를 꾸미겠다는 극단 해몽의 기획 역시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도, 극단의 활동도 다른 지역 연극에 귀감이 되는 모범적 사례일 것이다. 이런 극단이라면 이젠 브랜드가 된 <구포1919> 다음에는 어떤 기획을 선보일지 벌써 기대된다. 그 활동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 용천소극장

07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한 풍자적 성찰 <우 리들 의친 구, 인간>

김문홍 연극평론가/극작가



공연개요	
공연명	우리들의 친구, 인간
공연일시	2023년 10월 13일(금)~16일(월) 평일 19:30, 주말 17:00
공연장소	웅천소극장
제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비평 07 <우리들의 친구, 인간>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한 풍자적 성찰 — 김문홍

부산연극제작소 동넵의 <우 리들 의친 구, 인간>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 최용혁 연출, 90m, 웅천소극장, 2023.10.13.~15.)은 작품의 제명부터 풍자적 역할을 담고 있다. 원래 제명은 ‘우리들의 친구, 인간’인데, 극단 자체에서 인간의 오만함을 낱낱이 고발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존재의 언어 형식으로 비틀어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 반전 부분에서 인간을 한계상황 속에 가두어 놓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관찰하고 성찰하게 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작품의 무대는 복합적인 은유성을 포함하고 있다. 관객이 바라보는 무대 위에 또 하나의 공간이 존재한다. 사면이 비닐로 둘러쳐진 공간 안에는 쓰레기 더미 같은 의류 등이 난장처럼 흩어져 있고, 그 안에 반라의 남자(박성호 분)가 웅크린 채 신음을 뱉어내고 있다. 그런데 그 비닐 벽면을 바라보는 관객의 얼굴 역시 일그러져 보인다. 관객은 비닐 안에 갇힌 인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인간인 셈이다. 비닐 안에 있는 두 남녀보다 조금 자유로울 뿐이지 인간의 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만한 인간(관객)이 갇혀 있는 인간을 관찰하고, 이런 두 상황의 인간을 관찰하는 ‘외계 친구’의 삼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무대이다.

이 작품은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소설이지만, 거의 희곡 형식에 가까운 소설로, 한정된 닫힌 공간으로서의 무대, 시종일관 한계상황 속에서 긴장을 잃지 않는 서사적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막극적인 본질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닐 우리 속에 갇혀 있는 두 남녀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반라의 몸으로 한계상황을 견뎌내야 하고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남녀는 에덴동산에서 금기의 선악과를 따 먹은 죄로 추방되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 아담과 이브에 대한 상징적 은유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영원한 형벌을 풀어지기 전에, 세상 만물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휴머니티를 잃지 말 것을 되새기게 하는 아담과 이브일 수도 있다. 두 남녀는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갇혀 있는 지도 모르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가고, 그 두 남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비닐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관객,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참회를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외계 존재의 복합 구조로 얽혀 있는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관계망의 서사 구조 역시 다분히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비닐 감옥에 갇혀 있는 두 남녀는 결국 인간이란 존재를 감옥 속의 또 다른 재판정에 세워 놓고, 남자는 인간 존재가 저지른 죄상을 낱알이 까발려 기소하고, 여자는 인간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끝까지 변호하는 연극이라는 재판을 시작한다. 남자는 인간의 죄상을 하나하나 예로 들며 끝내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써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는 인간들의 성관계와 그에 따른 번식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여자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동 방식이며, 인류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열변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무죄를 입증해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그런데 인간의 죄상을 놓고 검사와 변호사가 되어 벌이는 재판 장면은 조금 지루하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죄를 자신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 인간의 역사를 보편적 시각에서 예증으로 들어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재판 장면은 전체 서사 분량에 비해

조금 길어 보이는데, 연출은 이 장면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기소 이유와 무죄 입증을 두고 번갈아 가며 대사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영상 이미지나 녹음 등을 통해, 또한 두 남녀의 대립과 갈등을 마음으로 보여주는 등 입체적인 시청각 이미지를 동원해서 보여주었다라면 그 장면이 보다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또한 관객들도 두 남녀의 대립과 갈등에 참여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판 장면에서 불특정의 관객에게 조명을 비추며 인간을 기소하는 이유와 무죄를 입증하는 변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의 반전은 서사의 백미에 꼽힌다. 두 남녀를 비롯한 관객들은 두 남녀가 왜 여기에 끌려와서 갇혔으며, 그들을 한계상황 속에 놓이게 한 주체가 누구이며 왜 그런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의혹이 해소되기에 이른다. 외계 존재가 독백처럼 되뇌는 말이 곧 이 작품의 특이한 제명이 되었으며, 결국은 이 외계 존재 역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표하며 인간의 친구가 될 것을 제의하며 막이 내린다. 여기에서 원작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주제 의식과 현실 인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역시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 장면 역시 비닐 공간에 갇힌 두 남녀, 그리고 외계 존재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퍼포먼스 장면을 삽입하는 것도 참여인극의 한 형태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 작품은 서사 구조의 곳곳에 여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출이 극적 상상력의 재량권을 발휘하고 활용해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작품처럼 닫힌 공간에서 두 남녀의 대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서사 구조의 연극은 배우의

정확한 화술의 구사가 선결 조건이다. 호흡 처리와 인터벌, 오버랩을 통한 리듬, 그리고 대사의 강약, 고저, 장단, 완급이 절대적이다.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이번 연극은 재미 위주의 대중극이 대세를 이루는 연극판에서, 관객에게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묻는 성찰의 연극이다. 연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다. 연극을 통해 관객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연극의 사회적 기능이다. 극단 동녘의 이번 작품은 부산연극의 지형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관객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깊다. 아울러 연극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연출가의 극적 상상력에 의해 연극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독창적이다. 그중 가장 으뜸은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08



(사)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피과 3테너>

이なり메 음악평론가/작곡가



공연개요	
공연명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피과 3테너
공연일시	2023년 5월 18일(목) 19:30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제작	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비평 08

<제75회 정기연주회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피과 3테너>

(사)부산네오피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5회 정기연주회 — 이なり메

5월 18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는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새로이 선정된 사단법인 부산네오피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네오피)의 제75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 공연은 전형적인 정기연주회 형식을 넘어서는 부산부녀장학회 한누리 장학회 통합기념 음악회라는 행사적인 성격이 더해진 특별한 공연이었다.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기연주회 횡수는 그 단체의 역사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대개 후원 회원을 가진 음악 단체들이 주로 이러한 형태의 음악회를 하며 subscription concert라고도 한다. 기획력이 좋은 단체는 한 시즌의 공연 레퍼토리와 협연자를 1~2년 정도 미리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현대음악 초연을 포함한 새로운 작품 연주의 시도, 특정 작곡가의 교향곡 사이클을 포함한 레퍼토리의 선택에서 오케스트라의 역량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본은 regular concert를 정기연주회라 번역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그대로 차용했다. 부천 시립교향악단이 regular concert를 정기연주회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있다(2023년 3월 현재). 정기연주회의 횡수는 후원회의 유무나 단체의 규모를 떠나 그 연주 단체가 걸어온 세월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교향악단의 역사는 공연 기획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소다. 2024년 봄 800회의 정기연주회를 앞둔 KBS 교향악단은, 지난 제700회 연주 때 큰 편성의 말러(G.Mahler) 교향곡 제2번 <부활>로, 제777회는 거장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를 초청하는 등 평소보다 더 특별한 게스트와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렸었다. 서울시향은 십여 년 전 교향악단이 큰 변화를 맞이하며 623회를 마지막으로 정기연주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최근 제600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네오필의 75회라는 정기연주회의 횡수도 민간 교향악단으로서 적은 연주 횡수는 아니다. 그동안 네오필의 음악 활동과 함께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들이 공연 프로그램에 담겨있었다. 후원회원들을 소중히 여겨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후원 상황을 언급하는 등 민간 오케스트라에서는 보기 드문 경영의 묘를 발휘하며 전체 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후원 금액도 확보하고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작품을 소화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인 후원 그룹에 속한 호의적인 관객이 많은 것도 이 단체의 장점으로 여겨졌다.

수 백회를 넘는 정기연주회를 가진 교향악단들도 많은 부침과 사연을 갖고 공연을 이어간다. 교향악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교향악단의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페라와 발레의 반주를 주로 하는 교향악단, 갈라 콘서트나 팝스 콘서트를 자주 연주하는 교향악단, 녹음 위주로 활동하는 악단, 특정 작곡가의 작품만 심도 있게 연주하는 교향악단 등 다양한 음악적 지향과 색채를 가진 교향악단이 존재한다.

한 번의 음악회로 정체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음악회의 구성으로는 네오필이 지금까지의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자세를 취하며, 연주만이 아니라 음악회의 색다른 기획과 단체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공연 단체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 특별한 공연에 정기연주회의 횡수를 더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말이다.

이날의 연주 <송영훈과 4첼로 & 네오필과 3테너>라는 흥미로운 형식과 제목은 악단이 정체성을 고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몇 해간 부쩍 양질의 클래식 음악 공연이 자주 열려, 음악 애호 인구의 발걸음이 늘어난 금정문화회관과의 연계로 안정적으로 공연을 기획할 기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고유의 오케스트라가 공연의 문을 여는 대신, 금정문화회관과는 제1회 부산 국제 클래식 음악제로 인연을 맺어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게 된 송영훈과 4첼로를 전반부에 배치하고, 후반부에는 네오필 오케스트라만이 연주하는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 명의 테너를 중심으로 한 공연구성이었다.

무대에 오케스트라 배치를 한 의자와 보면대를 뒤로 한, 시각적으로는 다소 어수선한 세팅으로, 송영훈과 4첼로가 무대 앞쪽에서 연주했다. 후반부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송영훈, 심준호, 이경훈, 김대연의 첫 곡으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잘 알려진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볼레로(Boléro)>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의 문을 열어주는 듯했다. 초반 앙상블이 조금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제자리를 찾았다.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주옥같은 소품, 영화 <여인의 향기>의 탱고 장면에서 흐르는 <간발의 차이 (포르 우나 카베자, Por Una Cabeza)>로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연주를 들려줬다. 명쾌한 보잉으로 만들어진 윤택 있는 울림과 위트 있는 뉘앙스가 매력적이었다. 네 명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첼로 소리를 듣기 위해 특별히 찾아온 관객들이 눈에 띄었다.

가곡이나 음악극 이외의 기악 작품은 비언어적이지만 연주자가 무대에 올릴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확실한 의도가 있다. 순수한 음악적인 흐름에 기인할 수도 있고 관객의 취향과 흥행에 비중을 두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위한 레퍼토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내용이나 미학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커뮤니티에 특화된 레퍼토리로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관련해 시공간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도 담겨있다.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레퍼토리를 짜는 데 있어서의 음악적인 관례나 관습도 존재한다.

아티스트의 의도대로 음악적, 혹은 음악 외적 메시지가 관객에게 전해질 수도 있고, 청중의 자의적 해석으로 음악적 사유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클래식 음악 공연의 매력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파동은 문학이나 연극 장르의 텍스트를 대신한다.

물론 모든 레퍼토리가 오케스트라를 책임지는 예술 감독이나 지휘자 중심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해외 투어 공연에서는 흥행을 위한 선곡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물론 금기시되는 곡은 연주 레퍼토리에서는 제외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천재 음악가 바그너의 음악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법적으로는 전쟁의 피해에 대한 많은 절차가 해결되었어도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바그너의 민족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사상을 나치즘과 접목하여 2차 대전 중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음악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음악의 오남용이 유대민족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 잇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줬다. 다른 전쟁에서도 음악이 하나의 무기와 같이 쓰인 예들이 많다.

또한,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연주 레퍼토리뿐 아니라 악단의 이름과 구성원만으로도 ‘평화’라는 인류 공통의 지향을 위해

연주 활동을 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음악의 파동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 때때로 글이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후반부 공연의 레퍼토리 구성은 관객 마음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위로와 연대의 의미가 큰 공연이었다.

이 공연의 사회를 맡아 활기를 불어넣어 준 김종천 단장이 음악회의 의미와 개인사를 엮어 프로그램에는 없는 즉흥인 듯 연출된 애창 팝송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부르는 모습은 흔치 않은 장면이었다. 공연의 후반부에서 드디어 이 음악회의 주인공인 네오펀터의 단독 연주가 시작되었다.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오페라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의 서곡이었다. 단원 중에 젊고 실력 있는 전공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기술적으로 무난한 연주를 들려줬다.

1990년 로마 월드컵 축구의 전야제로 열린 쓰리 테너의 성공적인 공연 이후 30년이 넘게 유사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좋은 테너를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에서는 관객들의 반응이 대부분 좋은 편이라 방송이나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부산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테너 김지호, 이신범, 성민기 세 명이 힘찬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성량이 풍부한 성악가들인데도 마이크를 사용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부산의 3인의 테너가 연주한 첫 곡은 루이지 덴차(Luigi Denza)의 <푸니쿨리 푸니쿨라(Funiculi, Funiculà)>,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에서의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Eduardo di Capua)의 <나의 태양(O sole mio)>이 연주되었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의 전주곡이 고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품격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순간에 비록 교향곡이 아닌 오페라의 서곡이었지만 클래식 음악의 면모를 잠시 보여주며 부산의 쓰리 테너가 열창으로 만들어 낸 열기를 잠시 식혀줬다.

그 후로 우리나라의 노래가 이어졌는데, 곡의 음악적 연결과 내용적인 연결이 매우 흥미로웠다. 흘러간 가요 <번지 없는 주막>으로 흥을 불러일으키고, 그 흥을 다시 크로스 오버 가곡 <향수>로 가라앉혔다. 이 침착한 분위기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이어지며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눈물을 닦는 관객들도 있었다. 역시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큰 것이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 관객들이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마지막 곡인 <아빠의 청춘>이 이어졌고, 눈물을 흘리던 관객들은 소나기 그치고 구름이 걷힌 양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 그야말로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사이에 공연장 안에서의 시간이 흘러갔다. 음악회를 구성한 음악 감독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감정을 건드리고 흐드는 음악의 초월적 에너지를 실감하기에는 충분 그 이상이었다.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단어 ‘클래식’은 라틴어 어원에서 온 것으로 ‘잘 정돈된, 영구적인, 모범적인, 품위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클래식 음악이 주는 음악적 특성도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의미와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금정문화회관 연계 단체로서의 네오필의 음악적 정체성을 이 공연 하나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름 앞에 있는 ‘네오’ 즉, ‘새로움’이라는 특성으로 전통과 전형의 클래식 음악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살리기 위한 밀도 있는 음악회로 승부하기 보다 대중과의 친화를 현재의 성장 전략으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졌다. 단체의 음악적 정체성, 대외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공연장 연계 사업임을 고려하면 최근 수년간 금정문화회관이 일구어 놓은 클래식 음악 공연의 토대와 방향성에도 부응하며 상호 합의된 무대가 준비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번 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된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조율은 공연의 횡수가 더해지며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클래식 음악의 열광적인 팬으로 알려진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보기 드문 기품을 가진 사람의 기품이 어떻게 붕괴되고 ‘품위’를 잃게 되는지, 품위를 인지하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 문화의 창작과 향유 방식은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가 가진 울타리 안에서 변화의 임계점은 어디일까?

네오필의 제7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본래의 물성을 지키며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관성에 젖어 가려져 있던 클래식 공연의 모양새와 음악적 내용 그리고 함께하는 음악가와 관객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시작됐다. ¶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x 영도문화예술회관

09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클래식 음악 <비틀어진 사계 속 영도>

박진홍 음악평론가



공연개요	
공연명	비틀어진 사계 속 영도
공연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9:30
공연장소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제작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저녁,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함께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찾았다. 이날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는 지구의 기후 위기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무대 위에 올렸다. U.K.O는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 결성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해 약 5억 원의 기금을 모아서 전달했다.

이번 연주에서는 오창록의 지휘로 네 곡이 연주되었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영화음악, 합주 협주곡, 그리고 오페라 서곡 등으로 성격이 다소 다른 작품들이었지만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의 기승전결 구조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선곡이었다.

첫 곡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유히 흐르는 맑은 강물, 멀리 보이는 산맥의 절경을 연상케 했다. 도입에 해당하는 이 곡은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표현했다. 오케스트라의 전체적인 음색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안정적인 음정을 들려줌으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다.

이어서 레미스피 편곡의 “비틀어진 사계” 중 ‘가을’이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명운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이 연주의 기획 단계에서는 비발디의 사계를 편곡한 “불확실한 사계(The Uncertain Four Seasons)”라는 작품을 연주할 계획이었다. 이 곡은 2050년 지구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를, 컴퓨터를 통해 예측하고 그 결과를 작곡가, 음악가, 기상학자, 컴퓨터 과학자가 참여하여 음악으로 만든 곡이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이번 연주에서 연주되지 못했고, 편곡자 레미스피가 영도의 환경 실정에 맞게 편곡한 “비틀어진 사계”를 연주하였다. 영도라는

지역으로 주제를 한정함으로써 이번 연주의 이슈를 더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곡자나 연주자의 의도, 즉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영도의 모습, 자연의 위기 등의 장면과 메시지를 어떻게 음악으로 나타내고자 했는지가 팜플렛이나 진행자의 멘트 속에서 잘 나타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발디의 “사계”가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라 관객들은 “비틀어진 사계”를 듣고 ‘아! 사계가 조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은 알아차리겠지만 음악 요소의 변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활동가 이송미가 진행자 강이안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환경활동가가 된 계기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 아름다운 영도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고 듣던 기후 위기 이야기를 실제 활동가의 입을 빌어 들으니 그 심각성과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 곡으로는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이 연주되었다. 차분하면서도 감정적 공감을 일으키는 이 곡을 배경으로 환경활동가들의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원곡이 연주되었다. 파괴된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때 원래의 자연을 되살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생각된다.

U.K.O는 연주자간 밸런스가 좋고 다이내믹의 변화에 민감하게 잘 대처하였으며 특히 섬세한 리듬의 표현을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정된 음정과 기본에 충실한 박자감, 그리고 음악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편안함과 다채로움을 동시에 관객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날 연주는 배우 강이안의 진행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관객들과 호응하며 밝은 분위기로 음악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한층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다만, 전체가 한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프로그램에서 음악 연주의 분량이 짧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메시지 전달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음악적 갈등을 느끼고 공연장을 찾은 여러 관객들은 만족할만한 음악적 자극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언어적 소통을 줄이고 음악적 소통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음악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연관된 문화를 계승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음악 인류학자 알랜 메리엄(A. P. Merriam)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이미 친숙한 음악을 기후 문제와 연관 지으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런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좋은 의미를 갖는 이런 연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물론 한 관객이 여러 차례 공연장을 찾아서 연주 단체의 활동을 모두 관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음악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서너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시리즈를 구상하여 무대에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산만 하더라도 일 년 내내 참 많은 음악회가 열리고, 부산시향을 필두로 성인, 청소년, 프로, 아마추어 등 정말 여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모두가 비슷한 색깔의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U.K.O는 결성 취지 자체가 사회 운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다른 단체와는 다른 위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좋은 공연으로 잘 일구어낸 연주회였다. 조금 더 메시지의 과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연주 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영진

09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영도문화예술회관

젊은소리쟁이 × 부산민속예술관

10



<별과장의 반란>

오세길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문화재위원



공연개요	
공연명	사물연희극 <별과장의 반란>
공연일시	2023년 10월 13일(금) 19:30
공연장소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
제작	젊은소리쟁이

특이하다 생각했다. 공연명 앞에 붙여진 ‘사물연희극’이라는 말에서 낯설과 신선함이 느껴졌다. 그랬기에, 어쩌면 전통예술공연계에 새로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우선 음악으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심리를 어떻게 나타낼지가 궁금하였다. 강약과 완급을 특징으로 삼는 사물악기를 통해 인물의 내밀한 심리를 섬세히 묘사한다는 기획 의도를 읽고 한편으로는 기대되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별과장의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장구 가락이 어떻게 표현해낼지, 만약 사물악기가 가진 표현력의 한계가 있다면 배우는 연극적 요소로 그것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지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사물음악이 인물의 성격과 서사를 세밀히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야말로 우리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벽찬 기대감도 마음에 숨어 있었다.

기대와 염려가 스러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별과장의 등장에서부터 긴장한 내 정신은 조금씩 무너졌고 여우의 어설픈 대사와 동작에 이어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토대장이 무대에 나서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을 즈음이지만 애초에 기대와 바람, 궁금증과 염려가 있거나 했냐는 듯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 전부터 흔히 보아오던 사물과 춤의 합동 공연일 뿐이었다. 이름만 사물연희극일 뿐 음악과 춤과 서사가 뒤죽박죽된 혼돈의 대공연이었다.

<별과장의 반란>은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파견 나온

별과장을 통해 현대인이 겪는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갈등을 사물연희와 연기로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별주부의 먼 후손인 별과장은 토끼를 잡아 오라는 명령을 받고 육지로 파견되지만 명분 없이 무고한 토끼를 잡는 것이 내키지 않아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결국 그는 현실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위해 그곳을 박차고 나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렇게 <별과장의 반란>은 비합리적인 조직의 명령체계에 기계적으로 따르며 내적 갈등을 겪는 직장인의 일상을 기본적인 모티프로 삼고 있다.

작품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명분 없는 임무에 대한 별과장의 갈등을 묘사한 설장구 솔로와 육지에 나온 별과장을 괴롭히는 여우들의 반고무춤, 여우를 물리치는 토대장의 뺨과리와 설장구의 듀엣 등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토대장과 친구들이 중심이 되는데, 징춤, 북춤, 비나리, 설장구와 판굿이 등장한다. 제3장은 용궁에서 온 바닷새의 춤과 별과장의 내적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 제4장은 대동굿 한마당으로 별과장의 결심과 새로운 삶을 대동굿을 통해 표현한다.

<별과장의 반란>은 그 기획 의도만 놓고 보면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다. 조직생활의 부조리와 개인의 자유의지 사이에서의 갈등을 사물 연희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에서부터 우리 전통예술의 본질인 가무악을 하나로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탐색도 뛰어나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민속타악기를 중심으로 연희극을 구성하여 관객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성과 재미를 함께 추구할 수 있게 한 점도 전통예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택한 뛰어난 전략이다. 기존의 <별주부전>의

후속 이야기로 스토리라인이 있는 연희극이라는 점도 눈에 띄며, 모순된 충성심을 대변했던 별주부가 비합리적인 조직의 명령에 의구심을 품고 갈등하는 별과장으로 대체된 것도 캐릭터의 확장과 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또 관객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열려있는 결말 형식을 취한 것도 전통예술 공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 의도는 그것이 예술적으로 충실히 형상화될 때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별과장의 반란>은 극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온전히 갖추어야 하며 서사는 개연성과 문학적 진실의 범주에 머물러야 한다. 배우는 대사와 동작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세밀한 심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와 조명, 분장과 의상 등 연극적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때 비로소 <별과장의 반란>의 미의식은 그 본체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애초의 기획 의도는 완성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연출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별과장의 반란>이 보인 문제점 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장과 의상 등에서 인물의 캐릭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리플릿의 안내 문구 없이는 별과장, 토대장, 여우, 곰 등 주요 등장인물을 쉽게 가려낼 수 없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캐릭터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양쪽으로 귀가 붙쑥 솟아 있는 동물 캐릭터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여우는 노란색, 토끼는 회색, 곰은 짙은 갈색 등의 식이었다. 또 별과장은 자신에 맞는 머리띠를 찾지 못했는지 양복 차림에 비니모자를 쓰고 있었다.

또 주인공 역인 별과장의 갈등과 심리변화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였다. 별과장은 크게 두 번의 갈등을 겪게 된다.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나오는 순간부터 부조리한 자신의 임무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바닷새가 등장하여 임무 완수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설장구를 통해 이러한 별과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그 어떤 가락의 완급과 강약도 내적 갈등의 묘사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가 그동안 익혀 온 부산농악 설장구 가락의 변주에 그칠 뿐이었다.

그리고 서사전개의 일관성과 개연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토대장 친구들의 춤과장이 서사전개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또 독촉자인 바닷새의 등장엔 별과장이 극심한 갈등을 내보이는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토대장과 같은 무리가 되었는데, 이는 그가 육지로 나오면서 생긴 애초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별과장을 괴롭히는 여우의 존재나 의미, 용궁의 전령으로 바닷새를 설정한 이유 등 서사전개의 개연성과 일관성 부재는 <별과장의 반란> 전반에 두루 걸쳐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별과장이 토대장의 무리들과 어울리며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고 결국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빔 스크린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대목에서 특히 심했다. 이때에는 당연히 별과장이 모든 영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의 심리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색해하다가 서서히 토대장의 무리에 동화되면서 표정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식으로 별과장의 심리변화에 주목하여 영상이 제시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연습 사진들의 나열만 이어질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의 연기력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는 연출자 스스로도 공연 말미에 고백한 것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연희자들은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에 대한 그리고 관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

요컨대 <별과장의 반란>은 극이라 할 수 없다. 대본, 연출력, 연기력 등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였다. 이것은 출연진 각자가 그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익혀 온 기량들을 엮기설기 엮어 ‘사물연희극’이란 이름을 내건 것일 뿐이다.

때로는 비유가 사실을 전달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

축구선수들이 모여 배구팀 창단을 선언했다.
축구의 경계를 넘은 새로운 배구를
보여주겠노라 선전했다. 경기 소식을 들은
축구팬들은 환호했다. 궁금증과 기대가
혼재했고 응원과 염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헤딩과 발차기,
온몸을 이용한 볼 트래핑 기술을 선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핸들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선수들은 아예 손을 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내내 그들은 배구도 아닌,
그렇다고 축구도 아닌, 족구도 아니면서 그나마
족구에 가장 가까운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이자 감독인

사람이 관중들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소속된
축구팀의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미처 손기술을
연마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엔 더 나은
배구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집 I

2023 공연예술비평집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2023
공연장연계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